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54년

2025년 1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록경(황보 상민)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12 호

총기 54년 제105회 추계 강공회 회향

10월 23일 전법관정수계법회, 11명 아사리 서수



“이제 제불보살과 일체 법계 성종과 여러 스승 앞에서 이 서수를 마시고 삼세 중에 보리에서 조금도 퇴전하지 않겠느냐?” 수계자 11명 일동은 “예”라고 모두 응답했다. 지난 달 23일 전법관정수계법회가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법선 정사를 수계자 대표로 한 11명의 스승은 △삼세 중에 보리에서 퇴전하지 않고 모든 계법을 준수 △불보

살을 받들어 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 △불보살과 부모와 국가와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갚을 것 △아사리의 행원으로 중생 제도를 버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라도 탈게 받고 이를 극복할 것을 불퇴전의 각오로 맹세했다.

사진=계사 아사리와 수계 아사리(뒷줄) 기념 촬영 모습, 관련 기사 2면, 화보 5면



종령 예하, 사감원장에 임명장 법일 정사, 제175회 종의회에서 인준

지난달 12일 임기가 만료된 사감원장 법일 정사가 사감원장에 다시 선임됐다. 종령 지성 예하는 10월 23일 종령실에서 법일 정사에게 사감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감원장은 종령이 지목하고 중앙종의회에서 인준한다. 중앙종의회는 10월 22일 제175회 종의회에서 법일 정사를 사감원장으로 의결했다. 법일 정사는 현재 부산 정각사 주교, 부산경남교구장을 맡아 밀교 흥포와 교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사감원장 임기는 3년이며, 총기 57년 10월 12일까지다.

제25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중국대회 성료



10월 17~20일, 세계평화 기원

제25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중국대회가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 일원에서 개최됐다.

종단은 통리원장 록경 정사, 총무부장 덕광 정사, 재무부장 법선 정사, 대구경북 교구장 법상 정사, 대구 개천사 주교 인덕심 전수가 한국불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관련 화보 4면

제1주기

故법계월 전수 추선불사

일시 11월 21일(금) 오후 1시

장소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중

중/조/법/어

독약에는 안 죽어도 망어에는 죽게 되니 만약 사람 망어하면 죽은사람이라 한다.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 58주년

1967년 11월 27일 설립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내년 예산심의 등 주요 사안 의결

추계강공회 이모저모 승단총회를 비롯해 종의회 등 종단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포함하고, 열반스승추선불사 봉행으로 스승의 은혜를 일깨우며 스승 간 수행을 점검하는 강공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본산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제105회 추계 강공회에서는 전법관 정수계법회가 봉행되었다. 전법관

정 수계는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제자가 되어 복과 지혜를 닦아 구경성불을 이루겠다는 의식이다. 수계에 앞서 대아사리 종령 지성 대종사는 증계아사리에 총지화, 수증원, 연등원, 선도원 전수, 록경 정사를, 교수아사리 지공 정사, 결계아사리 승효제 전수, 법상인 전수, 집공을 맡는 갈마아사리에 인선 정사를 위촉했다.

아사리계를 받는 법선 정사 외 11명의 수계 스승들은 귀명참회문을 부처님 전에 읽었다. 대아사리 지성 종령 예하는 청사 봉독에서 부처님께 불성계 화상이 되어주시기를 봉청하였다. 계속된 의식에서 전계아사리 록경 통리원장은 가지기도의 궤를 마쳤다.

수계자들은 서수인지문에서 대보리의 원을 퇴실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관정 및 서수의식’에서 대아사리 지성 종령 예하는 수계자에 향수를 뿌리는 관정수여의식을 하

였다. 또한 전계아사리 록경 통리원장은 서수를 하였다. 수계자들은 불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과 종단 교법을 엄수하고 중생제도를 다하겠다는 선서를 하였다. 법회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이밖에도 강공회에서는 총기 54년 추경 및 55년 예산 심의 안건을 통과했으며, 인지심 전수의 1차 촉탁, 법수연 전수의 2차 촉탁을 가결했다. 또 유지재단 일부 자산 매각에 관한 건을 승인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반야회 삼사순례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 반야회(회장: 김선영)가 11월 1일(토) 순천 송광사, 송광사 불일암, 낙안읍성을 순례하는 관불을 다녀왔다. 지도 법사 남해 정사(법성사 주교)와 회원 17명이 동참한 가운데, 송인근 동해중학교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불자회 회원 6명 등도 함께 붉은 가을의 여정을 따랐다. 반야회는 매월 법회를 통해 불심을 키우며, 1년에 한 번씩 삼사순례를 하고 있다. 사진=송광사 불일암

중원사 수련원 ‘정진’의 법석으로



괴산 중원사 수련원에서 진행된 1박 2일 템플스테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0월 30, 31일 1박 2일간 마련된 서울경인교구신정회(지회장: 노진숙) 간부 템플스테이는 법수연 전수, 화령 정사, 혜광 정사가 지도 스승으로 참석해 강의와 실참, 경행 등을 통한 학습과 수행의 장을 함께했다. 또 마니합창단 김양희 지휘자의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도 가졌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5년 10월 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통리원장, 관음종 창종 60주년 법석에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대한 불교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에 초청돼 축하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총무부장 덕광 정사, 서강 정사(실지사 주교)를 비롯해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 일본과 스리랑카 불교지도자 등 1천여 명이 동참했다.



일본 밀교 의식, 제등호마 법요 봉행 종교법인 신뇨엔이 전통 밀교의식인 제등호마 법요를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 야마나시현 후지산 진정사 야마나시 별원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총지종과 진각종 등 한국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가 초청됐으며, 통리원장 록경 정사와 재무부장 범선 정사가 참석했다.



불교텔레비전(주) 제105회 이사회 개최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제105회 이사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본사 8층에서 개최됐다. 이사 록경 정사를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및 스튜디오 영상 표시 장치 설치, 자회사 ㈜시니어티브이 신사업 투자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제2회 정기이사회 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록경 정사) 2025년도 제2차 추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총기 54년 제2회 정기 이사회가 10월 15일 통리원에서 열렸다. 신임 사외이사에 이승민 동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처장이 선임됐다.

부림합창제

일시
총기 54년(2025년) 11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창원 문화원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39번길 19-22

주최 불교총지종 마산 윤천사 부림합창단

후원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회 / 신정회지회

공연문의 055-223-2021 / 010-7502-2569

 **불교총지종**

‘무연대자 동체대비’ 본심을 이어가자



2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중국대회 개막식에 앞서 삼국 불교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계평화기원법회에는 통리원장 록경 정사 등 한국불교대표 109명을 비롯해 중국불교대표단(단장 연각 스님·중국불교협회장), 일본불교대표단(일중한교류협 이사장 다케 가쿠쇼 스님),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불교교류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25차 교류회의의 중국대회에서 삼국 불교지도자들은 황금유대를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삼국 교류가 인류와 지구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했다. 10월 19일 오전 제2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중국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 기념촬영. 중국 북경 광제사.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학술강연회에 이어 공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폐회했다. 한중일 불교지도자들은 10월 19일 오후 6시 공식 만찬으로 우의를 다지며 대회를 축하했다. 만찬장에서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한국불교대표단과 함께 11대 판첸 라마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세계평화기원법회 후 북경 우의빈관호텔에서 열린 제2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중국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맨 앞줄에서 참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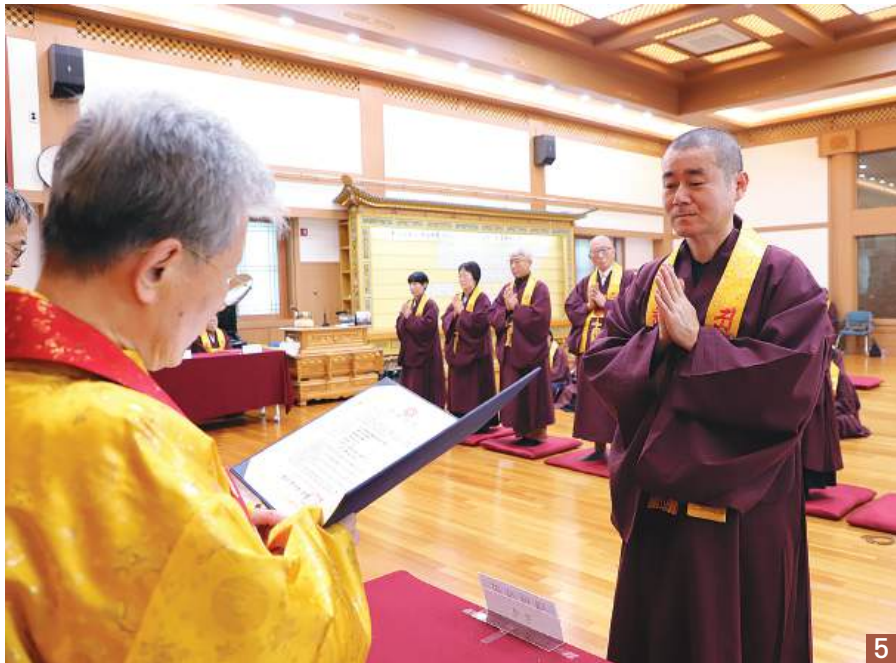


10월 1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우의빈관에서는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 - 신시대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에 관해서’란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개최됐다.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제자가 되겠습니다”



- 1. 대아사리 지성 종령 예하가 부처님께 청사 봉독중이다.
- 2. 전계아사리 록경 통리원장이 가지기도 의례를 하고 있다.
- 3. 걸계아사리 승효제, 법상인 전수가 본전에 향수와 서수를 올리고 있다.
- 4. 관정수계식에서 향수를 받는 수계자 도우 정사
- 5. 수계증을 받는 남해 정사
- 6. 전법관정수계법회가 봉행 중인 총지사 서원당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해탈은 생사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대자유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 제3절 각종 논설

12.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동시(同時)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불법(佛法)이다.

사람들은 다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말하나 둘은 양립(兩立)할 수 없는 모순적(矛盾的)인 개념(概念)이다. 민주국가(民主國家)가 가장 중요시(重要視)하는 것은 자유(自由)이다. 그런데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은 일치(一致)하지 않는다. 인간(人間)이 자유(自由)로우면 불평등(不平等)하여진다. 그 불평등(不平等)을 제거(除去)하기 위(爲)해서 통제(統制)하면 부자유(不自由)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社會主義國家)에서는 평등(平等)을 유지(維持)하기 위해서 자유(自由)를 통제(統制)한다. 그런데 가장 자유(自由)스러운 사람은 결인(乞人)이요, 가장 평등(平等)한 곳은 감옥(監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인(乞人)이 되는 것과 감옥(監獄)에 가는 것을 원(原)치 않는다. 그러나 불교(佛敎)는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해탈(解脫)을 통(通)하여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한꺼번에 얻는다. 불교(佛敎)처럼 자유(自由)스러운 것이 없고 평등(平等)한 것이 없다.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는 인권이고, 이는 자유와 평등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자유에 방점을 두면 불평등해지기 쉽고, 평등에 주안점을 두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제한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극한으로 맞선 적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제도는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원정 대성사께서는 양립하기 어렵고 자칫 모순적인 자유와 평등을 해탈을 통해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해탈이 자유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은 얼핏 이해되지만, 평등과는 어떻게 연관될지 뚜렷이 다가오지 않았다.

자유와 방종은 경계가 모호하다. 청소년기에 어른의 간섭과 제약을 거부하며 알아서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자칫 치기 어린 반항이나 방황에 그치기도 한다.

나의 자유가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빼앗기도 한다. 제멋대로인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수습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자유란 처음부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같

지는 않다. 나만 해도 그렇다. 뻑뻑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휴식과 재충전을 고대하면서도, 막상 그런 날이 오면 어영부영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꽤 진지하게 준비했던 계획들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평소에는 정해진 일과가 있고 주어진 업무가 있어 어쩔 수 없다 해도 모처럼의 여유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맨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시간을 쓸 줄 모른다.

시간뿐인가? 내 마음도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한다. 맛있고 예쁘고 멋진 것에 마음이 가면 내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싫은 행동, 미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나 종일 괴롭다. 펼쳐내려 하면서도 펼쳐버리지 못한다. 내 마음도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내 의지와 자유로 한단 말인가?

불교의 해탈은 제도나 규칙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협소한 자유가 아니다. 생사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 대자유이다. 나를 규정하거나 가두는 바깥의 구속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얹어매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속박을 끊어야

2025년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 시 : 2025년 11월 13일(목) 10시
장 소 :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 4층 대회의실
대 주 제 : 불교의 이세설과 이사 그리고 채용
주 최 : 한국밀교학회,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후 원 : 대한불교진각종, 불교총지중

학술대회 시간일정

총사회자: 한국밀교학회 총무이사 명문(김차은)
10: 00 - 10: 30
예참 / 진각종 교법연구실장 효광 정사
개회사 / 한국밀교학회장 정법 정사(진각종 교육원장)
축사 / 진각종 총리원장 능원 정사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록경 정사
한국밀교학회 명예회장 효명 정사
내빈소개
사진촬영

사회자: 최충남(중앙승가대학교)
10: 30 - 11: 15 제1주제 발표 / 중관의 이세설에 대한 연구
발표자/ 윤희조(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논평자/ 김태수(서울대학교 규장각연구소 연구교수)
11: 15 - 12: 00 제2주제 발표 / 유식학파 이세설의 구조와 그 의의
발표자/ 김재권(농인대학원대학교 교수)
논평자/ 김성철(금강대학교 교수)

12: 00 - 13: 00 점심 및 휴식

사회자: 이병욱(중앙승가대학)
13: 00 - 13: 45 제3주제 발표 / 화엄학에서의 이사에 대한 연구
발표자/ 정현 스님(동국대학교)
논평자/ 서담 스님(동국대학교)
13: 45 - 14: 30 제4주제 발표 / 중국선의 채용, 즉심즉불
발표자/ 김진무(충남대학교)
논평자/ 마해륜(고려대학교)

14: 30 - 14: 50 휴식 및 다과

사회자: 한성자(국사편찬위원회 번역위원)
14: 50 - 15: 35 제5주제 발표 / 주자성리학의 채용이론 고찰
발표자/ 안유경(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논평자/ 김희(강원대학교 철학과 교수)

15: 35 - 16: 20 제6주제 발표 / 밀교에서 채용론에 대한 이해
발표자/ 성제 정사(위덕대학교 교수)
논평자/ 강대현(위덕대학교 연구교수)

16: 20 - 16: 40 폐회사

2025년 한국밀교학회 정기총회

16: 40 - 17: 30 정기총회
17: 30 저녁 식사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강릉관계로 1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불교에서 중심주제라 할 수 있는 불교의 이세설과 이사 그리고 채용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되오니, 스승님 그리고 학회원, 신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서원합니다.

※2025년 학회 회비가 아직 미납되신 분은 정기총회일 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참조하여 납부바랍니다. (진각종유지재단 밀교학회, 농협, 301-0371-7009-81)

한국밀교학회 회장 정 법

생사와 윤회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옛 스님들은 해탈한 도인의 일상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라고 표현했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결코 만만한 경지가 아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은 데도 입이 심심해서, 단 게 당겨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먹는다. 이미 배가 찼는 데도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절제하지 못한다. 졸리고 피곤한데도 잠들지 못한다. 눕기만 하면 온갖 번뇌 망상이 창궐한다. 욕심과 걱정과 집착과 분노 때문에 먹고 자는 일부터 엉망이다. 먹는 것 하나, 자는 것 하나도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볼 때면 자신이 한심하고 무기력해진다.

해탈은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다. 자연의 질서대로 살 수 있다면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을 것이다. 성주공공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조금 늦추고 완화할 수 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생로병사와 우비뇌고(憂悲惱苦)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해탈은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리라. 과거의 업장과 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자신을 이끌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과 해탈은 어떤 관계일까? 평등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마다 생각과 가치와 지향이 다르고 능력과 취미는 물론이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르니, 일률적으로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도 않고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닌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불평등의 역사와 제도는 타개해야 할 오랜 과제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불이, 동체대비라 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성품인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평등하다. 생명의 가치와 본질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인종과 국가와 학력과 신분 등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보잘 것없는 우리의 현실을 질타한다. 나에게 부처 될 성품이 있어 존귀하듯 우리는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은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탄했다. “나는 그대를 공경합니다. 감히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하실 분입니다.” 모두가 본래 부처이기에 우리는 지극히 평등하다. 그 지혜에 눈을 뜬다면 자연스레 상대를 나와 다르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인과야말로 가장 평등한 것이 아닐까? 개인이 지은

업에 따라 예외 없이 결과가 따른다면 이것이 가장 공정한 규칙인 것 같다. 인생은 어차피 자신의 몫이다. 업과 과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없애주거나 바꿔줄 수도 없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 참 공평하다. 시쳇말로 인과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한다. 오직 자신의 수행과 노력으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등하다.

우리가 다다르고자 하는 해탈의 길은 상상 이상으로 자유롭고 평등할 것 같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넘치거나 모자랄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복돋우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웃으면서 말이다.

〈무명을 밝히고〉〈거룩한 만남〉
윤금선 BBS 구성작가

지혜의 눈

뜬 앞의 잣나무

선호의 반대말은 불선不善
동아시아는 불이不二로 설명

한 스님이 조주(趙州)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뜬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柏樹子].” “경계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뜬 앞의 잣나무니라.”

질문한 승려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조주 선사에게 질문하였다. “뜬 앞의 잣나무”라는 대답에 승려는 장난처럼 느꼈던 것 같다. 반발하자 조주는 다시 질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정전백수자’였다. 승려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조주의 대답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자 반발한 것

이다. 조주는 그것을 알고 마침 뜬 앞의 잣나무를 보고 대답한 것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란 불교의 진리를 묻는 것이다. 질문을 바꾸면 ‘불교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삶이란 무엇인가?’이다. 그런데 ‘뜬 앞의 잣나무’라니! 다시 묻는 말에 조주는 또 “뜬 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대답하였다. 질문한 승려는 조주의 의도를 간파했을까? 간파했으리라 추측한다. 질문한 승려도 오랜 수행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고원(高遠)한 저기에 두고 그것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선문답이 도문 스님과 법륜 스님의 사이에서 있었다. 법륜 스님은 불교와 사회 운동을 하면

서 환속하여 재가 법사로서의 삶을 꾸려왔다. 도문 스님은 법륜 스님에게 다시 절에 들어와 생활하라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문답이 오갔다.

스승 도문이 “이제 들어와서 활동해라.”라고 말씀하시자 법륜은 “스님, 도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도에는 안팎이 없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법륜은 “그런데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십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로서의 삶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도문 스님의 대답이 “네가 밖을 고집하니가 안이 생기지.”였다.

삼조(三祖) 승찬(僧璨, ?~606) 대사의 『신심명(信心銘)』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지도무난 유협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단막증애 통연명백(但莫憎愛 洞然明白)”, 즉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미워할 뿐이다.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멈추면 통연하여 밝다.” 개인적으로 단막증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시비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시(是)와 비(非)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시와 비의 너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시비는 절대적 구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고,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시비는 변하기 마련이다.

시비를 구분하되 ‘도덕경’의 말씀처럼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와 같이 하여야 한다. 시비와 선악의 구분은 없어질 수 없다. 시의 입장에서 비를 제거하면 그 내부에서 다시 시와 비의 구분이 따라온다. 시와 비를 초월하는 또 다른 경지는 없다. 선의 대척점에 악을 설정하는데, 악이 제거되면 모든 것이 선으로 꾸러질까? 다시 그 안에 선과 악이 나뉘게 된다. 경계를 뚜렷이 하면 할수록 양쪽에서 다시 구분이 생긴다. 그래서 선의 반대말을 불선(不善)이라고 한다. 선과 불선은 선을 공통분모로 하므로 서로에게 열려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이를 불이(不二)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왕생법문

마음을 닦는 실천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불공이다

오늘 무엇을 가지고 설법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미천하여 부처님 말씀과 주옥같은 원정 종조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다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부처님과 종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종조법설집』 116쪽의 ‘불공하는 마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진 중에 특히 지족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언제인가 불교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천은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며, 마음을 닦는 실천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불공입니다.

“칠일 정진은 먼저 탁하고 뒤에 맑아지는 법이라 반드시 탐심에 대한 시련이 먼저 들어오므로 지족으로써 이 시련에 속지 말고 극복하여야 칠일 후에 공덕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아주 오래된 교도님인 어떤 보살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아들이 술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하면 술을 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보살님을 보니 많이 닦았는데, “진실어중선밀어(眞實語中宣密語) 무위심내기비심(無爲心內起悲心)”(『천수경』), 즉 그러한 쪽으로는 밝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해서 회사를 태우면서, 또는 진언과 불공 중에는 보살의 모습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보면 그 아름답고 선한 보살의 눈이 귀신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할 때나 불공할 때는 보살이 되었다가 돌아가서 아들을 볼 때면 귀신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아들을 보는 눈, 아들을 보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



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보살님이 만든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불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이 마음을 닦는 불공을 드려야 가정에서나 사회 활동에서도 항상 즐거우며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한 자성불공에 반드시 공덕성취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시간 일찍 나오는 것이 공덕성취에 제일 좋은 방법이 된다.”

“정진 중에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기로 힘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칠일 정진은 특히 탐·진·치를 단제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주간 공부가 되는 까닭임.”

제가 10월부터 교도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안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절로 뚫린 게 입이라 자주 궁금한 것을 묻거나 말을 시키면 나는 꾸밈없이 말을 털어놓을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절량으로 할 때 한 되라도 싸게 하려고 사 온 게 아니고, 위장병을 나으려고 사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장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심지를 피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의 마음, 서원의 마음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불공하는 보리심 자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위한 공부입니다.

“정진 중에 몸으로 악한 행동과 입으로 악한 말과 뜻으로 악한 마음을 없애기로 힘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칠일 정진은 특히 신구의 삼업을 끊어 없애고 인격을 완성하는 주간 공부가 되는 까닭입니다. 칠일 공부에

는 4일 고개가 있고 삼칠 불공에는 열하루 고개가 있고, 칠칠일 불공에는 이십오일 고개가 있고, 백일 불공에는 육순 고개가 있고, 평생 수행에는 사년 고개가 있느니라. 이것을 알아서 속지 말고 용맹으로써 고개를 깨달아 넘어가는데 평탄한 길을 얻어서 행복한데 이르게 되느니라.”

우리 밀법은 염화미소, 즉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 가섭 존자가 살짝 미소 짓는 그런 불립문자, 불보살이 필요 없이 법계와 내가 일체로 뚫고 들어가는 총지(다라니)이며, 최상의 7억 7천만 준제진언, 육자진언입니다. 스스로 그 진언을 가지고 항상 정진과 내가 둘이 아니다, 불공과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법계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총지신문〉 20호 지상 설법 중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친근한 종단으로...



총지종의 역사

제4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2011년~2021년)
02. 시대와 함께하는 총지종 구현

청소년에게 다가간 ‘겨울 스키캠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 수련대회는 끊임없는 변신을 꾀했다. 괴산 수련원에 한정되었던 수련 장소를 전국의 캠프장과 유적지, 해수욕장 등으로 옮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했다. 그리고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겨울방학으로 변경하고 스키캠프로 전환했다.

2011년 1월 19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횡성의 현대성우리조트와 오션월드에서 진행된 겨울 스키캠프는 대 성공이었다. 전국 각지의 교도 자녀와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어린이가 함께한 가운데 의궤법에 따른 불공과 애니메이션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강습 선생님의 지도로 스키를 배웠다. 참가자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와 시험에서 벗어나 스키 체험과 물놀이를 즐겼다. 마지막 날 밤

장기자랑으로 흥과 끼를 마음껏 발휘했다. 참가자 모두가 다음 캠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2012년 겨울 스키캠프에서는 스키와 보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종단 수행법, 종단의 역사와 불교 교리 강좌 등으로 신심을 기르고,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으로 숨은 재능을 분출했다. 겨울 스키캠프는 2013년에도 이어져 스키 체험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과 호흡하며 협동심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보듬은 ‘바른 인성형성 프로그램’

3년간 대회 100여 명의 종단 청소년이 참가한 스키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전문 수련 프로그램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

그램 - 참된 나를 찾는 여행과 한마음캠프’를 시작했다.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단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단별 여행프로그램과 전원이 참가하는 캠프를 병행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신청자가 스스로 여행팀을 구성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여행의 주체로 참여했다. 자유롭게 여행지를 선택하되 일정 중 명상 시간을 갖고, 사찰을 비롯해 문화유적지, 미술관, 박물관 등의 관람 일정을 유도하여 여행과 교육과 놀이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팀별로 멘토를 배정하여 인생의 진로와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첫째 232명의 청소년이 32개 팀을 구성하여 1박 2일 일정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소규모 집단별로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스스로 일정을 준비하여 진행하며 성장의 경험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개별 여행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후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서 2박 3일 일정의 한마음캠프를 진행했다.

캠프에서는 여행에 참가한 팀별로 여행 목적, 일정,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각자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한 팀에게는 상을 수여하여 격려했다. 물놀이와 놀이공원 관람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청소년 전문 강사의 특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도록 도왔다.

프로그램은 해마다 정교해져 여행의 날짜와 장소, 일정을 자유롭게 계획하되 자기 성찰의 명상 시간, 인생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만남의 시간, 멘토와의 대화 시간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배치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 특유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여행을 진행했고, 캠프 역시 청소년 전문가 및 치유명상 전문가의 강의로 청소년들에게 시야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팀별 여행 후기 발표 대회에서 여행과 답사의 과정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강 등 주제별 연구 성과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줬다. 해마다 여름에 개최해 온 한마음캠프를 2017년과 2018년에는 겨울 스키캠프로 전환하여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만다라청소년 능력개발원 설립

2014년 중앙교육원 산하에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 포교를 전담할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을 설립했다. 청소년의 각종 중독 예방과 상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한성대학교 중독예방연구소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서울 시내 1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흡연, 알코올, 게임 등 각종 중독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집중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 부적응 청소년에게 집단상담 기법을 응용하여 명상, 요가, 드라마 치료,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제공하고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들이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종단의 모습을 만들어 나갔다.



해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⑧

금강계만다라의 공양회供養會

공양회는 그림과 같이 금강계 구 회만다라(九會曼荼羅) 중에서 왼쪽 의 중단에 위치한다. 공양회에서는 존상(尊像)과 삼매야형이 동시에 그려져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상의 손에 연꽃이 들려 있고, 그 연꽃 속에 각각의 존상들의 서원과 공능을 상징하는 삼매야형이 놓여 있다. 이처럼 존상에 삼매야형이 가미된 것은 여러 보살이 공양 올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양회라는 용어에서도 익히 알 수 있듯이 불보살 간에 상호 공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로자나불께 올리기 위해 사불(四佛)이 출현시킨 사바라밀보살, 사불에게 공양 올리는 16보살, 사불의 공양에 대한 답례로써 비로자나불이 출현시킨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 다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사불이 출현시킨 외사공양보살(外四供養菩薩), 마지막으로 비로자나불이 다시 그 답례로써 출현시킨 사섭보살이 32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중앙의 비로자나불과 사불에 대한 공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32존이며 금강계만다라의 공양회다.

공양회는 불보살의 상호공양을 나타낸다. 32존 가운데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은 사불이 중앙의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인데, 금강바라밀보살(제일 중앙 작은 원 아래쪽), 보바라밀보살(왼쪽), 법바라밀보살(위쪽), 갈마바라밀보살(오른쪽)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바라밀보살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동방의 금강바라밀보살은 아축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견고한 보리심으로 중생들을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보살이다. 이 보살의 진언종자가 흙(hum)인데, 이 글자는 번뇌

를 타파한다는 의미로서, 곧 보리심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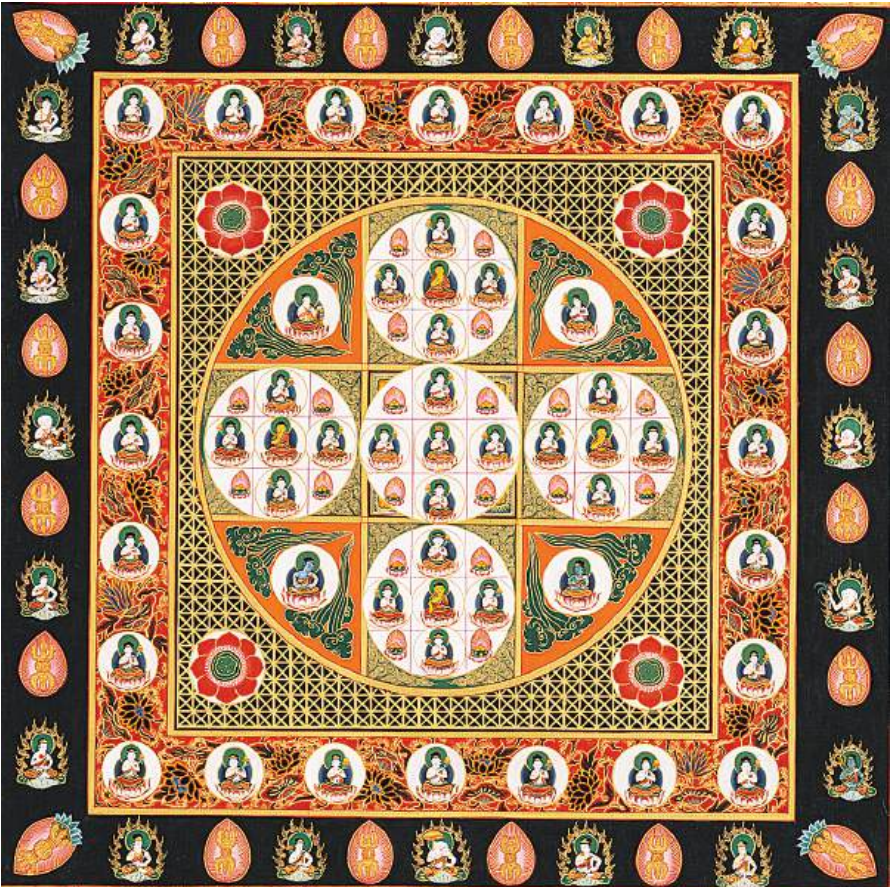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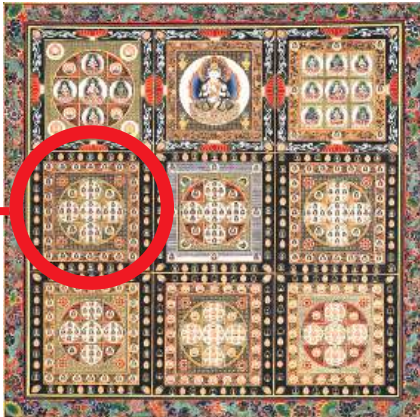
남방의 보바라밀보살은 보생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보(寶)와 재복(財福)으로써 중생의 갖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다. 서방의 법바라밀보살은 아미타불(무량수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연꽃에 비유하여 연화금강(蓮華金剛)이라 부른다.

갈마바라밀보살은 불공성취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용맹정진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이들 사바라밀보살은 비로자나불에 대한 공양과 관련된 보살인 반면, 비로자나불을 제외한 사불에 대해 공양 올리는 보살은 16보살이다. 16보살은 사불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각 4보살이 모여져 있는데, 사방(四方) 사보살(四菩薩)로서 도합 16보살이다.(4×4=16) 16보살은 사불을 중심으로 각 사방에서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행하는 보살이 16대 보살과 8공양보살이다. 동방의 아축불(아래쪽 중간 원 안 중앙 작은 원)에 공양 올리는 사보살은 금강살타, 금강왕보살, 금강애보살, 금강희보살이다. 이 보살들이 올리는 공양을 보리심공양(菩提心供養)이라 하며, 보리심을 견고하고, 일으키고, 청정·성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남방의 보생불(왼쪽 중간 원 안 중앙 작은 원)에 대한 공양은 관정공양(灌頂供養)이라 하는데, 관정과 예경 등으로 공양을 올리므로 관정공양이다. 사방에 금강보보살, 금강광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소보살이 있다.

서방의 아미타불(위쪽 중간 원 안 중앙 작은 원)에 대한 공양은 법공양(法供養)이라 하는데, 부처님의 가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공양회	성신회 (갈마회)	항삼세회
미세회	삼매야회	항삼세 삼매야회



공양회

르침[法]으로써 공양을 올리므로 법공양이다. 사방에 금강법보살과 금강리보살, 금강인보살, 금강어보살이 무량수불께 공양을 올리고 있다. 북방의 불공성취불(오른쪽 중간 원 안 중앙 작은 원)에 공양하는 것을 갈마공양(羯磨供養)이라 하며, 불보살의 각종 활동을 의미하므로 갈마공양이라 한다. 여기에는 금강업보살, 금강호보살, 금강아보살, 금강권보살이 있다.

16대보살은 보리심을 체(體)로 하는 금강살타로부터 시작해서 발심과 수행을 통해 그 마지막 단계로서 보리심을 굳건하게 감싸는 금강권보살(金剛拳菩薩)로 끝을 맺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로자나불께 공양 올리기 위해 사불(四佛)이 사바라밀보살을 출현시켰다고 했는데, 비로자나불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써 내부(內部)의 사공양보살을 출현시키고, 다시 사불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외부의 사공양보살을 출현시킨다. 이를 8공양보살이라 하며 실제로 공양물을 지니고 있다. 또 여기에 비로자나불께서는 마지막으로 사섭보살을 출현시키고 있는 것이 금강계만다라의 공양회다. 이와 같이 공양회는 불보살의 유기적 관계와 소통, 나눔의 상호공양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해광 정사(시법사 주교)

남해 정사의
인도성지순례기

아침 안개 속 아그라성 그리고 가르침의 땅 인도와의 작별

⑪ 순례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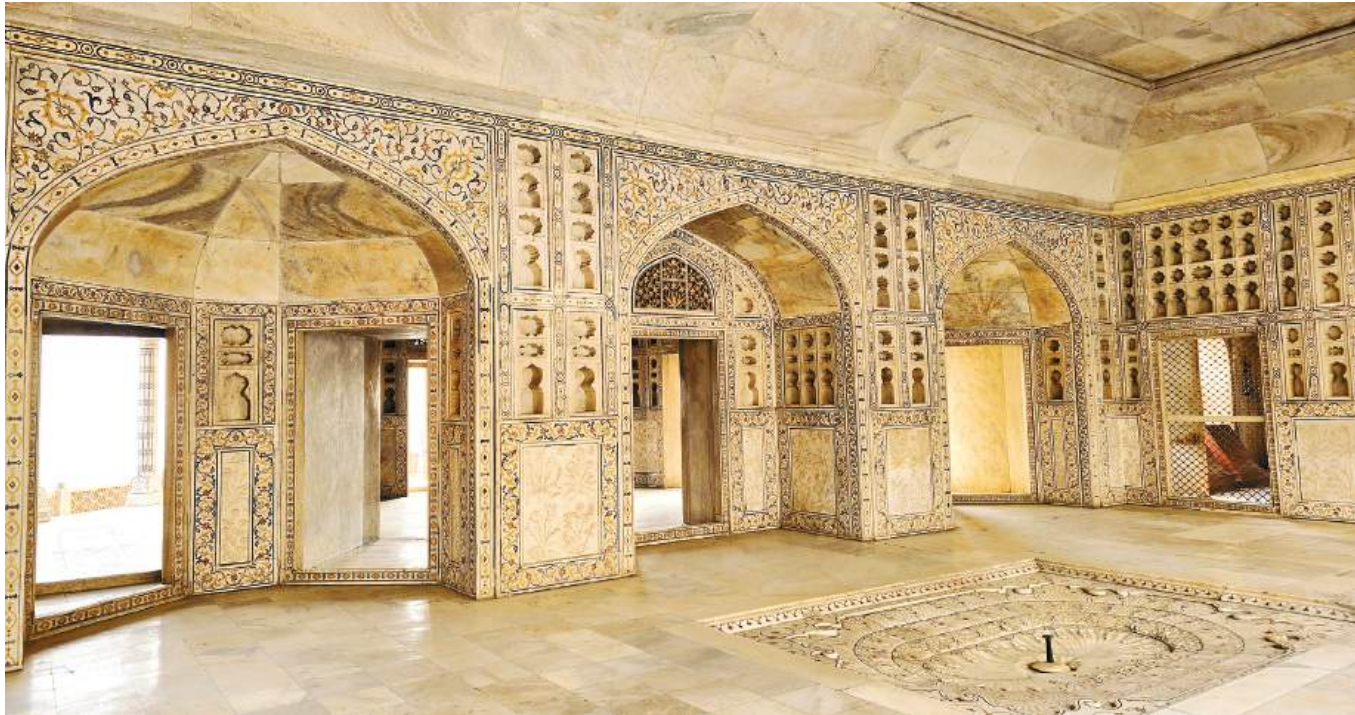
인도 성지순례의 마지막 날 아침 공양 후 아그라 성으로 향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그라 성의 외부는 붉은 사암으로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내부는 흰색 대리석으로 웅장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아그라 성은 타지마할을 축조하면서 너무 많은 재정을 낭비한 샤 자한이 말년에 그의 아들인 아우랑제브에 의해 유폐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샤 자한은 야무나강 너머의 타지마할이 가장 잘 보이는 무삼만 버즈 (Muasamman Burj)에 갇혀 있다가 끝내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전한다.

이날은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데다 아침 안개까지 끼어 흐릿하게 보였지만, 아그라 성 전망대에 서면 저 멀리 타지마할이 보인다. 아들에 의해 아그라 성에 유폐되어 저 멀리 아내의 무덤인 타지마할을 바라봤을 샤 자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인도는 유독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역사가 많다. 불교 경전에도 마가다국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인 빈비사라왕의 왕위를 찬탈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아그라 성 관람 후 점심 공양을 마치고 델리를 향해 출발해 4시간 만에 도착했다. 델리 초입부터 정체가 심해 차량의 뒀 없는 줄다리가 이어졌다. 간신히 델리 시내로 들어와 인도문으로 향했다. 인도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바탕으로 영국의 에드윈 루티언스 경이 설계한 문 모양의 기념비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한 인도 군인 7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자세히 둘러보고 싶었지만, 일정상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치며 차창을 통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인도문 인근에는 대통령궁이 있다. 대통령궁 주변에는 대통령 관저,



인도 아그라성과 남해 정사

국회의사당, 정부 청사 등 정부 주요 건물과 각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다. 정부 주요 건물이 있는 곳이라 도로는 잘 정비돼 있었으며, 차량 정체도 없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궁 주변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하여 거지, 노숙자, 동물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궁도 인도문과 마찬가지로 차량 관람으로 진행되었다.

저녁 공양 후 델리 공항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이 공항 입구에 혼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가이드의 말을 들으니, 인도에서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가친척과 지인이 공항으로 배웅을 나가는 것이 전

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항 내의 혼잡을 피하고자 여권과 항공권 소지자만이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마중은 공항 밖에서 해야 한다.

혼잡한 공항 입구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인천공항행 비행기가 연착되어 공항에서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도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후 여독으로 인해 며칠간 감기 몸살에 시달렸다.

“인도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먼저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함

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스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도 성지순례가 처음이라 부족한 사전 준비로 인한 아쉬움이 있지만, 부처님의 향기로운 발자취를 따라 불법의 스며들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의 기회가 다시 있다면,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준비한다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벌써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두서없고 부족한 인도 성지순례기를 마칩니다. 성도합니다.”

남해 정사(법성사 주교)



하늘의 세계관

불가사의의不可思議 아사리 밀교 흥포 현밀의 온전한 불교가 신라시대 유포

불교문화를 포함해 민족사의 발원에 관한 기초를 다지는 일은 동북공정의 반향으로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작업이다. 얼마간 다룬 상고사와 의례의 관계는 한국 밀교의 연원이 파미르고원에서 출발해 요하 문명, 홍산 문명에 이르는 민족사의 기원과 깊이 닿아 있다는 사례를 밝힌 것이다.

상고사를 통해 ‘삼국유사’에 조각처럼 전해졌던 신유림과 삼기산의 주술승, 문두루법의 흔적들이 민족문화로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천년 신라불교의 성격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 가운데 하나를 요약하면 그것은 하늘이었다. 우리 민족에 도달한 최초 불교의 원형은 바로 하늘이었을 것이다. 수천 년간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 거북의 껍질을 태워 한자의 기원인 갑골문자를 개척한 것은 우리 민족이다. 의상은 화염을 연구해 하늘의 화장세계가 곧 인간의 현실이며, 원효의 『기신론』과 『금강삼매경론』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하늘이었다. 하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늘로 돌아가려던 신앙적 동력은 의상, 원효 같은 성사들의 연구와 수행을 통해 인간 현실과 인간의 심성을 지향하는 종교로 거듭난 것이다.

신라 불가사의의(不可思議) 아사리는 생물이 명확지 않지만, 716년 입당한 선무외(善無畏, 637~735) 삼장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700년 전후 출생한 인물이다. 원효(617~686)나 의상(625~702)의 활동 시기와 불가사의의 아사리가 두 성사보다 약간 후대의 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원효와 의상 이후 거의 동시대에 정비된 밀교의 연구와 주석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선무외 삼장이 일행(一行,



683~727)의 도움으로 『대일경』 역경과 더불어 당시 연찬을 모아 『대일경소』를 저술했지만, 선무외 삼장이 손수 『대일경』 제7권을 가지고 입당했기 때문에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의 주석이 『대일경』의 역경보다 다음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확실한 것은 원효와 의상이 현교의 진리를 드러낸 이후 곧이어 불가사의의 아사리가 밀교를 흥포하였으니, 현밀의 도리가 일찍이 짝을 이루어 현밀이 온전한 불교가 신라 시대에 유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주 언급한 말이지만 불가사의의 아사리는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에서, “대저 진리의 지극한 도리는 언어를 떠나고 모양이 없지만 근기에 응해 시현하니 나타내지 못하는 상(相)이 없으며 이른바 아자(阿字) 등의 수행문으로 그 이치

를 밝히는 것이다[夫眞性至理離言像 應機示現無相非顯 所謂阿字等門妙明其理.]”라 하였다.

진표 율사(718~)는 미륵신앙과 몸을 버리는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알려졌지만, 일찍이 순제(順濟)에 출가하여 『점찰선악업보경』과 『공양차제법』을 전수받았다고 하였으니, 불가사의의 아사리의 입적은 알 수 없지만, 도당 후 신라에 귀국하여 자신의 주석을 선양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점찰선악업보경』은 사후 업보에 의해 가게 되는 세계를 밝힌 것이고, 『공양차제법』은 비로자나 진리 법신을 성취하는 수행문을 주로 설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진표를 유식학승이나 율사로서 보려는 해석이 많지만,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사법을 고려하면 밀교를 선양한 아사리로서 대중교화를 위해 점찰법회

와 미륵신앙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원효, 의상, 불가사의에 의해 민족의 하늘 신앙은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으로 온전히 대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 서거정이 엮은 ‘동문선’ 권 119에는 이색(李穡)이 지은 ‘서천 제납박타 존자 부도명(西天提納薄陶尊者浮圖銘) 병서(并序)’가 있는데 제납박타 존자는 곧 지공(指空) 화상을 가리킨다. 지공 화상이 천축을 유람할 때 차라박국(哆囉縛國)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불법과 외도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화상이 왕에게 『대장엄공덕보왕경(大莊嚴功德寶王經)』 「마혜사라왕인지품(摩醯莎羅王因地品)」을 보여주었을 때 왕이 칭찬하자 외도의 무리가 해치려 하여 괴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지공 화상이 『대승장엄보왕경』의 고본을 패용한 사실로 고려 시대 당시 아시아에 육자진언의 유행 규모가 적지 않았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지공 화상은 선사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경전 패용은 지공 화상이 현밀에 원통한 아사리였다고 평가해도 결코 헛되지 않다.

지공 화상 외 순례기를 남긴 승려의 기록은 외도나 이류의 승려로부터 위협받은 수많은 사례를 전한다. 불법의 진리를 세상에 퍼는 것은 인간이 지닌 분별심과 사욕이 만든 거대한 권력과 폭력을 극복하는 험난한 과정이다. 불교는 세계종교 가운데 연기의 진리를 설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 민족의 기원에서 바라본 하늘의 가치는 홍익인간이다. 불교와 함께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공존을 설하는 평화의 종교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길 바라 마지않는다.

정성준 | 자유기고가



총지로 여는 삶 ⑨
멈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첫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단군의 탄생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이니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지은이의 소망과 세계관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는 예수교인들의 이야기나, 신과 인간이 결혼하여 영웅이 탄생하고 그들이 운명의 힘에 이끌려 세상을 다스렸다는 그리스인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가 신의 뜻이나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멋없이 읽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야기를 몇 단계로 나누고, 그 이유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 나름 가능한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환인(제석천)의 아들 환웅이 사람 다스리기를 위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아래로 내려와 살았다. 곰과 범이 사람 되기를 빌었다. 굴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삼가며 100일을 지내도록 지도했다. 범은 견디지 못하여 그만두고, 곰은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 환웅이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 단군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

곰과 범은 정말 동물이었을까? 곰과 범이 비유라면, 환웅과 곰과 범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곰과 범은 왜 환웅을 부러워했을까? 굴속 생활과 이전 생활은 무엇이 달랐을까? 범은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 곰은 사람이 된 후에 이전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일지 않았을까? 환웅은 21일이면 될 일을 왜 100일 동안 하라고 했을까? 범도 사람이 되었다면



환웅은 범과도 혼인했을까? 곰과 범은 처음부터 암컷이었을까? 수컷들은 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환웅은 왜 자신의 종족과 혼인하지 않았을까?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우화로 읽지 않고 그대로 읽는다면 비과학이 되고 요즘 시대에는 어린이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신과 기적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야 고개가 끄덕여지거나 기억하고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몇백 년을 전해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환웅은 선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고 곰과 범은 좀 뒤떨어

“나는 멈추었는데, 그대는 멈추었는가?”

진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으며, 곰과 범은 좀 더 나은 기술을 배워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서 환웅에게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지금까지도 평등과 자유보다 계층적 구조와 지배적 관계를 선호하고 지식과 기술을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지식과 배움의 경계를 허물고 평등과 자유를 일체 중생에게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환웅의 홍익인간 정신도 일연 스님이 보기에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 보였던 듯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시하는 변화의 요건을 첫째 발심, 둘째 멈춤, 셋째 숙성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발심은 사람 되기를 비는 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멈춤은 쑥과 마늘만 먹는 데서, 셋째, 숙성은 굴속에서 10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야 일을 성취할 수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멈춤에 대해 좀 더 사유해 봅시다.

손가락 목걸이(앙굴리말라)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청년이 외도 스승과의 잘못된 인연으로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찾아다닐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을 뒤따라가던 앙굴리말라가 “멈춰라.”라고 하자, 부처님이 “나는 멈추었는데, 그대는 멈추었는가?”하여 비로소 최면에서 깨어나고 자기 행동을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해 새로운 삶을 삽니다.

100일의 기간 설정을 보더라도, 집중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기간인데 곰은 21일 만에 성취를 이루었으니 100일 되었던 21일이 되었던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기존의 습

관을 멈추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라지느냐 마느냐에 있지, 얼마 만에 되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순간부터는 새로운 습관으로 살지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전 습관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달라진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곰과 범의 다른 점이기도 할 텐데, 곰은 새로운 습관이 좋고 할 만한 것이었고, 범은 이전의 습관에서 살맛이 났던 것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사의 문답, “참선은 왜 합니까?” “깨닫기 위해 한다.” “깨달은 뒤엔 뭘 합니까?” “참선한다.”라는 말도 그렇고, 일체중생은 시시각각 소원 성취하는 삶을 산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를 비롯한 취하는 삶의 습관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과 일체의 취하는 음식을 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 야식과 폭식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과 그 습관을 떨쳐버리고 고민을 벗어난 사람, 사치와 허영에 빠져 낭비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과 공부와 사업 등 자아 성취에 열정을 쏟는 사람, 누구도 타인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그 세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고 봐야겠습니다.

밀교 총지종의 삼밀관행 수행법은 멈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현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마침내 즉신성 불할 수 있는 수승한 법이 된다고 나름 해석해 봅니다. 서원당에 나오시는 총지종도님들은 모두 이미 발심하셨고, 기존의 습관을 ‘옴마니반메흠’에 멈추시고, 청정한 보리행의 새로운 습관을 즐기시는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맑은 인연 속에 있을 수 있음에 오직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옴마니반메흠.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9월 26일 ~ 10월 25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도관	9/26	20,000
	지종영	9/26	20,000
	도관	10/20	20,000
	지종영	10/20	20,000
관성사	이상희	10/4	10,000
	법선	10/20	10,000
국광사	진여	10/20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10/20	10,000
	수증원	10/20	10,000
	밀공정	10/20	10,000
	법지원	10/20	10,000
	일성혜	10/20	10,000
	사홍화	10/20	10,000
	선도원	10/20	10,000
	안주화	10/20	10,000
	진일심	10/20	10,000
	최상관	10/20	10,000
	연등원	10/20	10,000
	자선화	10/20	10,000
	승효제	10/20	10,000
	주신제	10/20	10,000
	총지화	10/20	10,000
덕화사	무명씨	10/14	30,000
	법상인	10/22	20,000
동해사	김진화	10/1	10,000
	송인근	10/20	10,000
만보사	강명순	10/2	10,000
	홍도열	10/11	20,000
	김정희	10/20	10,000
밀인사	황갑용	10/4	20,000

밀인사	박길선	10/10	10,000
	덕광	10/10	20,000
법성사	남혜	10/20	10,000
	신말심	10/21	10,000
	장정숙	10/21	10,000
법천사	반야심	9/30	10,000
법황사	인선	10/20	10,000
	정계월	10/20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10/1	80,000
사원명 무기명	박필남	10/15	10,000
	한영희	10/15	3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9/26	50,000
	이태윤	10/25	10,000
	박현정	10/25	20,000
세곡키움센터	남경식	10/5	10,000
	최선훈	10/24	10,000
수계사	자심관	10/20	10,000
수인사	공재호	10/16	20,000
	법상	10/22	20,000
시법사	혜광	10/12	10,000
	이순영	10/12	20,000
실지사	황성녀	10/23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9/26	80,000
양지동 복지회관	서영주	9/26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9/29	80,000
운천사	보명심	10/22	10,000
	우인	10/22	10,000
일원어린이집	연명구	9/26	20,000
		10/24	20,000
자석사	도우	10/9	10,000

자석사	지현	10/9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9/26	80,000
	안한수	10/2	10,000
	탁상달	10/16	10,000
	법일	10/20	10,000
정각사	노점호	10/23	1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9/26	80,000
	김정환	10/3	10,000
	정연경	10/3	10,000
	유은혁	10/3	10,000
총지사	백귀임	10/10	10,000
혜정사	조성기	9/29	20,000
	최영례	9/29	10,000
	조성기	10/22	20,000
화음사	강동화	9/29	10,000
	무명씨	9/30	10,000
	송영근	10/1	10,000
	송하나	10/1	10,000
	송호영	10/1	10,000
	박대영	10/1	10,000
	박대성	10/1	10,000
	홍춘자	10/1	10,000
	이성희	10/16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10/10	80,000
위드다르마	진여	10/2	10,000
	법공	10/20	10,000
	자선화	10/20	10,000
	총지화	10/20	10,000
	남혜	10/20	10,000
	이수영	10/27	10,000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11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 . 203

불교의 목적

불교는 내세주의적인 천상에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방편이며
현세에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체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
즉, 심중의 악마와의 투쟁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인생의 진리를 깨쳐서 절대 안온의
이상세계를 체현하는 것이다.



지장 스님의 향유 _18
뷰티풀 마인드
__ 지장 스님



마음챙김 메커니즘 _20
마음챙김 패러독스
__ 임진수



문화유산 해설 _23
감로도
__ 편집실



지혜의 뜨락 _25
팁 주는 할머니
__ 편집실



살다보면 _26
죽음의 선취
__ 이옥경



소통의 한의학 _29
들국화와 감국
__ 정은철

바른 믿음과 이해를 통한 불교의 실천체계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실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불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다른 종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까닭은 교조이신 석가 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의 보편타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된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릇됨이 없어야 한다.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다면, 동양 사람에게 맞는 것이지만 서양 사람에게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 항상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과 같이 항상 가짓수를 나누어 일목요연한 체계 하에 설명된다. 이것을 법수(法數)라고 한다. 이 법수 가운데 사만성불(四滿成佛)이 있다.

사만성불은 불교의 대표적인 신행 체계로서 흔히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고 한다. 이것은 『점찰선악업보경』에서 처음으로 설해진 것인데, 우리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신해행증의 네 가지가 원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른 이해를 통한 실천이 제대로 되어야만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미신과 맹신을 떠난 믿음

신해행증의 사만성불에서 첫 번째인 '신'은 믿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양한 종교를 믿으며 살고 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름의 신조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징크스나 부적 같은 것을 믿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믿

음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과연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잘못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한다. 미신과 맹신 때문에 인류는 많은 불행을 겪었고, 지금도 미신과 맹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행을 겪고 있으며, 온 인류의 미래 또한 어두워지고 있다. 종교에 기인한 인종차별, 테러, 대량 학살, 집단 자살, 전통문화 파괴 등이 대표적인 맹신의 예이다.

그러면 이러한 맹신이나 미신과 달리 불교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도의 으뜸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였다. 불도를 닦아 정각을 이루는 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삼보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 주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불법을 지키고 전하는 승보에 귀의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누구나 불자가 되려면 먼저 삼귀의계를 받고 삼보에 대한 귀의를 맹세한다.

귀의라는 것은 신명을 바쳐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불교 의식에서 삼귀의에 관한 계송을 가장 앞에 놓는 것도 믿음이 도의 시작이고, 원천이며,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삼보에 대한 믿음은 불교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그 가운데서 연기와 공에 대한 믿음은 불자로서는 필수적이다. 이는 인과의 도리를 믿는 것으로서, 이것을 부정하고 우연이나 어떤 절대자의 힘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해-정견에 바탕을 둔 이해

사만성불의 두 번째는 해다. 해는 바른 이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바른 이해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바로 맹신이다.

부처님께서 무엇이든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전통이나 소문, 위대한 스승의 말씀이라거나 혹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경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부처님에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믿지 말고 진리에 비추어보아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스스로 검증한 다음 믿으라고

하셨다. 말하자면 정견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불자로서 정견은 사성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이다. 정견을 지닌다는 것은 고집멸도의 사성제 이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 체계는 사성제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성불을 향한 사다리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한다면 잘못이 없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바른 이해가 없이 무조건 믿으면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자기 견해에 집착하거나 무조건 믿는 것을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람이 ‘이것만이 진리이고 그 이외의 것은 거짓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진



리라고 하여도 집착하면 또 하나의 미신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검증한 다음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 믿되, 거기에 집착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태도이다. 해만성불(解滿成佛)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행-팔정도와 육바라밀의 실천

사만성불의 세 번째는 행이다. 행은 믿고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처럼 실천이 따라야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불교에서 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팔정도’와 ‘육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 팔정도는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로서 성불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방법을 말한다.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팔성도(八聖道)라는 여덟 가지가 바로 이것인데,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말을 하며,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며,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도리를 잊지 않으며, 마음을 늘 고요하게 가집으로써 괴로움을 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팔정도는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자라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팔정도가 개인의 내면을 충실히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육바라밀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즉 이타행에 좀 더 치중한 실천 방법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천 방법이 육바라밀이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의 음역으로서 ‘최고의 상태’ 혹은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에 의지하면 괴로움이 많은 미혹의 이 언덕에서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린 깨달음의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는 의미로 파라미타를 한문으로는 ‘도피안’이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이 언덕이니 저 언덕이니 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바라밀이라는 말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도 되고,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수단도 된다. 이러한 바라밀에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 바라밀을 말한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을 육행이라고도 한다.

팔정도가 내면의 수행을 중시하는 것에 반해 육행은 대상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는 보시나 인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시에 대한 강조는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이타행으로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는 사상이 저변에 있다. 그야말로 대승불교의 실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증-진리의 체득

사만성불의 마지막은 증만성불이다. 증이라는 것은 진리를 증득한다, 체득한다는 의미이다. 경전에서는 ‘무분별적 정법지(正法智)와 부사의 승묘공덕(不思議勝妙功德)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한 마디로 최고의 지혜를 얻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경지가 바로 이것이다.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잘 이해하며 거기에 따라 실천하면 이러한 경지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불자로서 열반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내보인 것이 바로 신해행증의 사만성불이다.

성불이니 열반이니 하면 많은 사람은 나와는 별개의 아득한 경지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설해진 것이다. 바른 행위에 대한 공덕을 믿고 바른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거쳐 거기에 맞게 실천하면 그 공덕은 저절로 얻어지게 된다. 이처럼 신해행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의 이해와 실천으로부터 높은 경지의 득오에 이르기까지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체계이다.

대전 만보사
김명환 보살 49재 추도사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엄마로 산다는 것이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엄마의 따스한 품과 사랑이 왜 이리도 사무치게 그립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내일도 모레도 내 곁에 계실 줄 알았던 우리 엄마.
집에 가면 군방이라도 “우리 딸~ 왔어?”하고 반겨주실 것만 같은데,
이제는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데 마음이 한없이 미어집니다.
엄마가 늘 아낌없이 주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살아오신 헌신 덕분에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는 것도 엄마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되니, 내가 정말 미련한 딸이었음을 실감합니다.
오늘로 벌써 49재...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 생각나고 집에서 따로 기도도 제대로 못 해 드려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항상 자식들을 위해 늘 기도만 하시던 엄마 모습을 생각하면 이 힘든 걸 어떻게 매일 몇 번씩이나 하셨던 건지 그냥 감사하자는 말로는 정말이지 너무도 부족합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던 사랑은 내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유산이 되었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던 엄마의 가르침대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더없이 훌륭한 유산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그토록 부처님께 빌며 원하고 바리던 건,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엄마! 이제 엄마 마음 불편하지 않게 울지 않을게요. 우리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주 먼 훗날, 내가 엄마 만나러 갈 때
“우리 딸 대견하더! 잘했더!”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살게요.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는 딸 숙현이 올림

지
장
스
님
의
향
유

뷰티풀 마인드

아름다운 마음 만들기는 우리 마음의 ‘미래’를 만드는 일

2001년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아마도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요.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쉬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 졸업 후 MIT 공대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성에 들어가 소련의 무전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맡게 되지요.

영화에서는 50년 가까이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내쉬 박사를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보살피준 그의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후반부에 가서야 알게 되는 중요한 반전입니다. 술 잘 먹고 잘 노는 대학 시절의 룸메이트.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조카딸, 또 국방부에서 나온 퍼시라는 요원은 영화 내내 내쉬 박사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가짜이지요. 즉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내쉬 박사에게는 실제로 보이고 만져지고 들렸건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박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UCLA 대학에 이츠하크 프리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뇌암이나 간질병 환자의 뇌에서 신경세포의 반응을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는 뉴런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앞에 컵을 보고 있을 때만 반응하는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 뉴런에 자극을 주면, 눈앞에 실제 컵이 없는데도 환자는 컵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우리는



Photo by Irina Iriser@Unsplash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우리 뇌가 만들어 낸 신호일 뿐
착각은 불필요한 고통 일으키고 천국과 지옥 만들어

눈으로 어떤 대상을 직접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뇌에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끌어모아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자극이 생기면 눈에 대상이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뇌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시 존 내쉬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내쉬 교수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것은 실재가 아니지만 내쉬 교수의 뇌에서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사람은 그것들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내쉬 교수뿐만 아니라 사실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또한 정말 실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출력된 신호들일 뿐입니다.

과연 누가 본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다 착각이면서 환영입니다. 정상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들 또한 그 사람의 주관과 착각이 이미 상당히 개입된 상태입니다. 나이 들어 가면서 우리 각자는 대상을 인식하는 신경회로가 고착화되고 강화됩니다. 결국 그렇게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 자기만의 착각 속에 살다 가겠지요. 착각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때론 행복이나 즐거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불편한 상태를 더 많이 만들고 영향력이 더 강하지요. 결국 우리의 착각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부분 착각이라는 꿈을 계속 꾸고 삽니다.

이왕 꿈꾸는 거 ‘뷰티풀 마인드’ 즉,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면 금상첨화겠지요. 가장 아름다운 꿈은 아마도 꿈이라고 잘 알고 꿈의 내용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좀 재미없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뇌의 신경회로 또한 부단히 노력하면 새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만들기는 우리 마음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교육원장

생각의 열매
구원반점마음을 다한 시간이
존귀한 인간을 만든다

짜장면은 맛있다.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을 말하는 것이다. 일찍부터 짜장면은 먹어 왔지만 자장면은 알지 못했다. 국어학자들이 아무리 자장면이 옳다 우겨도 짜장면은 짜장면이다. 자장면이라 하지 않고 짜장면이라 부른다고 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니 자장면이란 표기를 두고 그저 짜장면이라 부르겠다.

요즘 음식가의 관심은 짬뽕에 있다. 전국 5대 짬뽕이니 하여 듣도 보도 못한 중화요리계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극 탐험을 마친 허영호가 짬뽕을 원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 어떤 감동의 순간에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요리로 짬뽕을 들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결핍과 갈망의 순간 아련히 떠오르는 음식은 단연 짜장면이다. 누구나 한 가지쯤 짜장면에 얹힌 행복한 기억은 갖고 있을 터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지라 행복한 음식을 보며 행복했던 자신을 자각한다.

해인사 인근을 지날 때면 부러 찾아가는 음식점이 있었다. 구원반점. 경남 가야면 야천리에 있던 식당이다. 구원반점이란 이름은 본디 가야면 구원리에서 중국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인사에 가기 위해 홍류동 계곡으로 접어들어 굽이길에 몸을 몇 차례 흔들리다 보면 구원반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십 년 전 아랫마을로 옮긴 후 그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구원반점의 짜장면이 이름난 것은 해인사 스님들 덕이다. 먼 길 끝에 해인사 어귀로 접어드는 스님들은 구원반점에서 마지막 속세의 끼니를 때운다. 세속의 먼지와 욕망과 상념을 털듯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고 홍류동 계곡물에 마음을 씻으며 절로 올라갔다. 스님들이 음식을 시키면 주



Photo by tommao wang@Unsplash

인은 색다른 솜씨로 짜장면을 만들어 낸다. 고기 대신 고구마와 호박을 썰어 말려 장을 볶았다. 그 감칠맛이 독특했다. 밀가루 음식 특유의 소화 불량도 일으키지 않고 구원반점 짜장면은 먹어도 역하지 않고 물리지 않았다.

스님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후 해마다 몇 차례 구원반점 짜장면은 대중공양 식단으로 올랐다. 주인장이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후원 공양간으로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산속 대중 모두는 부러 큰절 후원에 모여 짜장면 한 그릇씩을 비웠다. 누구나 감동 어린 마음으로 짜장면을 먹었다. 짜장면은 시장통의 한 끼니 요깃거리 이상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선가의 승려들이 모여 화두를 들고 필생의 숙제를 해결하려는 여름 겨울 결제 철이면 구원반점은 더 바쁘게 돌아갔다. 날씨가 잡히면 주인장은 몇 날 전부터 고구마와 호박을 말리며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말수 적고 부끄럼 잘 타던 주인장의 면 뽑는 솜씨를 지켜보며 저것이 종교적 수행과 무엇이

다를지 생각했던 적이 있다.

지금 그 구원반점의 기억은 남아 있지만, 그 주인장과 그 솜씨는 사라졌다. 그의 성공은 속세의 행복을 주었다. 조금씩 돈을 모으고, 조선족 부인을 얻어 자식을 낳았다. 그의 부인 또한 조신하고 부지런한 이였다. 결혼 후 남편 대신 해인사 대중공양을 꼬박꼬박 치러 수백 그릇의 짜장면을 거뜬히 만들기도 했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나 주인장의 어머니는 아들의 여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양이다. 소소한 불화들이 이어지더니 구원반점은 주인이 바뀌고 말았다. 그의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수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선객들의 고단한 한철 수행을 달래주던 짜장면 대중공양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힌두의 성전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는 인간은 자신의 직업과 행동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신을 찬미하거나 종교의식을 치르거나 연민으로 못 생명을 돌보는 성스러운 일뿐 아니라,

도살장에서 생명을 거두는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인도의 현자들은 그것을 일러 ‘행위를 통한 수행(Karma Yoga)’이라 불렀다. 일상의 일이나 습관적 행동조차 종교적 수행과 다를 바 없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깨우쳤다.

“행위를 하되 그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일,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낳을 좋은 성과나 나쁜 결과를 자신의 것만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 그것을 갖춘다면 세상 모든 일이 성스럽지 않을 까닭이 없다.” - 간디(Mahatma Gandhi)

불교에서는 그를 일러 ‘회향(回向)’이라 표현한다. 자신의 님은 바를 세상에 위해 돌린다는 뜻이다. 성(聖)과 속(俗)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번뇌와 깨달음이 달리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세상을 여의어 떠나는 것만큼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고귀하다. 진정한 세속은 그치지 않는 욕망 속에 있다.

구원반점 옛 주인에게 짜장면을 빚는 일은 수행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의 직업과 삶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진지하게 반죽을 주무르고 장을 볶는 행위를 통해 그는 이미 행복해졌고 존귀해졌다. 그는 자신의 솜씨로 세상을 대접하여 축복하였다.

절망과 구원은 결국 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미천한 직업, 불행을 강요하는 험하고 힘든 일. 그것이 나를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 어떤 일에서건 마음을 다해 귀한 시간을 보내자.

김 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종자> 외

마음챙김 패러독스 - 현대 서구명상의 역설

“미움과 사랑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불교적 수행의 관점에서 마음챙김(sati)은 명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마음챙김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그 대상이 집중(호흡 혹은 화두)이면 사마타(집중:止) 명상이 되고, 대상이 신수심법(사념처)이면 위빠사나(통찰:觀) 명상이 된다.

사마타를 통해 삼매[定]를 닦고, 위빠사나를 통해 바른 이해[正知:慧]를 개발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상을 통해 반야(般若)라고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관(止觀,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의 동북아 불교 용어)을 통하든, 혹은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화두[話頭, 동북아 대승불교의 하나인 선불교(禪敎)의 수행법. 비논리·비정형의 수행법]를 잡든 간에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고,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남방불교의 사띠(sati)를 서구의 학자들이 mindfulness로 번역하고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관점의 오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각 살아온 삶에서 만들어진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산을 바라보아도 산을 바라보는 위치가 동서남북에 따라 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격의불교(格義佛敎)에 대해 알아야 한다.

격의불교는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초기인 위진 시대(220~420)에 유행한 불교로서 간단히 설명하면, 중국의 관점에서 인도의 불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당시 인



Photo by Kloud Wakker@Unsplash

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철학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교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인 사상과 교리 등을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기존의 사상인 노장사상의 개념을 빌려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나 설명은 본래 불교사상의 개념을 왜곡시켰다. 예를 들어,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般若心經)』의 ‘공(空)’에 대한 의미를 노장사상의 ‘무(無)’ 개념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불교인 듯 불교가 아닌 것처럼 발전하던 중국불교는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인도의 불교 원전이 전해지면서 원전의 의미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한 자체적으로 사상적·수행적 발전을 통해 더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인도불교와 중국불교를 완전히 같은 불교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불교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에서도 이어져,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승불교의 경전인 한역본 『금강경』에 나오는 핵심 개념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의 개념도, 인도 불교철학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새로운 해석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완전히 체계가 다른 사상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이론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서구 사회의 바탕이 되는, 절대적인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신론(有神論)적 서구 기독교 사상과 여기에서 파생된 돈만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상의 유물론(唯物論)적 관점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심론(唯心論)적 의미를 원래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mindfulness의 정의에 대한 오류

그래서 남방불교(테라와다불교)의 명상법을 기반으로, 서구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대 명상은, 사띠(sati)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적 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번역과 해석 그리고 의미에서 미묘하지만, 큰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구 심리학자들이 마음챙김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서구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마음챙김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

현대 mindfulness의 특징

대표적으로 MBSR에서 주장하는 마음챙김의 개념은 1) 독특한 방식으로 2) 의도를 가지고 3) 지금, 이 순간에 4) 판단하지 않고 5)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6) 생겨나는 자각이라고 정의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마음챙김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가 존재한다. 1) 현재 지금 2) 주의 3) 집중 4) 자각 5) 비판단 6) 탈중심 등의 개념은 공통으로 들어간다. 다른 개념들 – 현재 지금, 주의, 집중, 자각 – 등은 마음챙김의 요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판단’과 ‘탈중심’이다.

비판단과 탈중심 개념의 오류

비판단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탈중심은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학자들은 이 ‘비판단’과 ‘탈중심’이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mindfulness (마음챙김)의 단계에서 이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테라와다불교(남방불교)든, 마하야나불교(북방불교)든, 바즈라야나불교(티베트불교)든, 공통적인 깨달음의 목표가 바로 ‘비판단’과 ‘탈중심’이다. 비판단은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개념이고 탈중심은 ‘무아무심(無我無心)’의 개념과 상통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신심명(信心銘)』에는 이 내용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신심명』은 중국 선불교의 제3대 조사(祖師)인 수나라 시대 승찬 대사가 지었다. 이 글은 37개의 사구계(四句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첫 구절은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헤간택(唯嫌揀擇) 단막증애(但莫憎愛) 통연명백(洞然明白)”이다. 37개의 사구계 중에 첫 번째 계송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이 구절이 신심명의 요체라고 보고 나머지 36개의 계송을 해설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해석하자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분별)함을 꺼릴 뿐이다. 미움과 사랑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명백해지리라.”

여기에서 보면, 간택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판단)을 의미하고,

증애는 미움과 좋음으로 표현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결국,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야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 명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과 좋고 싫음을 만드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서양의 학자들은 이런 불교의 최종 목표를 마음챙김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양학자들이 바라보는 인지 구조 개념의 차이에 있다. 여기에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메타인지 개념이 등장한다. 서구 심리학자들은 인지 체계가 상위인지와 하위인지로 나뉜다고 본다. 자기 객관화 능력이라고 보는 메타인지를 상위인지로 이해함으로써 상위인지(메타인지)를 통해 하위인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위인지의 제어 능력으로 하위인지에서의 비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위인지에 명령을 내리는 상위인지에는 ‘제어’라는 판단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제어하는 ‘상위인지’도 결국 내 자신의 인지이기 때문에 비판단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상위인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인지를 인정한다. 여러 개의 인지가 내면에 존재하고 그들이 서로 바라보는 상태일 뿐, 인지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단계에서 비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번뇌(煩惱)가 번뇌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렇게 비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결국 ‘마음을 챙기는 자’를 상위인지(메타인지)에 놓고, ‘마음챙김을 당하는 자’를 하위인지에 놓아서, ‘마음을 챙기는 자(메타인지)’의 자아를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강화된 ‘또 다른 자아’는 결국 ‘자아중심’을 강화하게 되므로 ‘탈중심’이 될 수 없다. 결국, 비판단과 탈중심은 마음챙김의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자기부정 없는 자기긍정의 오류

명상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자기긍정명상’과 ‘자기부정명상’이다. 몸이 아픈 환자로 예를 들어보면, 몸이 심하게 약한 환자엔 바로 수술할 수 없다. 처음엔 체력을 회복하고 수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수술할 수 있다. 자기긍정명상은 체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삶에 찌들고 상처를 입고 약해진 상태인 사람들에게 마음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는 명상법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체력이 회복된 후에는 마음의 수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부정명상이다.

서양의 마음챙김의 개념은 ‘자기긍정’의 명상을 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런 자기 긍정 명상은 자아를 강화한다. 그런데 ‘비판단’은 ‘무념’의 개념

이고 ‘탈중심’은 ‘무아’의 개념과 맞닿아 있어서 비판단과 탈중심, 즉 무념(無念)과 무아(無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부정’의 명상이 필수적이다.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념과 무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단과 탈중심은 자기부정명상의 결과인데, 비판단과 탈중심을 마음챙김의 조건으로 놓아 자기긍정명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서양의 ‘자기긍정명상’ 자체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힘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자기부정명상’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자기부정은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자기긍정명상도 필요하다.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명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상처가 나을 후에 자기긍정명상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긍정’을 버려야 한다.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부정명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에는 배가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볼 명상센터 대표

담마빠다 지止와 관觀

채찍만 휘둘러도 내달리는 말처럼
신심과 덕행, 정진과 삼매로
지혜롭게 통찰하고 진리를 살피야
극심한 이 괴로움 벗어나게 되리라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삼매(三昧)는 ‘사맛디(samādhi)’라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서, 정신을 통일하여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중력으로 사물을 통찰하는 것을 위빠싸나(vipassanā)라고 합니다. 사맛디를 지(止)라 하고 위빠싸나를 관(觀)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닦아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여 흔히 지관쌍수(止觀雙修)라고 합니다. 사맛디가 우선이라느니 위빠싸나가 우선이라느니 논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수행적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잠을 발견한 이에게 영광 있으라!”

맑은 일과[34가지 일]

향 사르기, 차 달이기, 낮잠, 밤에 책 읽기, 문장 비평, 책 쓰기, 시 짓기, 그림 그리기, 전각(篆刻), 운자(韻字) 뽑기, 거문고 연주, 바둑, 활쏘기, 투호, 검(劍) 감상, 거울 보기, 물고기 기르기, 학 길들이기, 폭포 소리 듣기, 산책, 꽃 심기, 대나무 옮겨심기, 샘물 마시기, 소나무 돌보기, 연꽃 감상, 국화 따기, 채소 뜯기, 과일 줍기, 정원에 물 뿌리기, 눈 쓸기, 더위 씻기, 시원한 곳 가기, 햇볕에 약 말리기, 환약 조제.

清課[三十四事]

焚香, 煮茗, 午睡, 夜讀, 論文, 著書, 作詩, 作畫, 鑄籀, 射韻, 鼓琴, 圍碁, 射帳, 投壺, 觀劍, 覽鏡, 養魚, 調鶴, 聽瀑, 踏青, 種花, 移竹, 汲泉, 撫松, 賞蓮, 掇菊, 挑蔬, 拾菓, 灌園, 掃雪, 濯熱, 就涼, 曬藥, 調丸.

장혼(張混, 1759~1828), <이이엄집(而已集)> ‘평생지(平生志)’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낮과 밤이 뒤바뀐 채 살았다. 오후 1시쯤 일어나 연구소나 도서관으로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와 일출을 보고 잠들곤 했다. 수면 패턴을 되돌려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모국에서 시차증을 앓는 흔치 않은 경험만 하며 거듭 실패했다. 의지박약이 원인이었겠지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보다는, 차라리 시차가 6시간쯤 나는 나라에 가서 살면 어떨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만 했다. 물론 그 나라에 가면 또 그곳 시간대에 맞춰 낮과 밤이 뒤바뀌겠지만 말이다. 이후에 취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낮과 밤은 제자리를 찾았다. 월급은 힘이 세다.



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지만 잠에 관한 생각은 각자 다르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도 있고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사람도 있다. 잠은 죽어서 실컷 잘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재미있게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잠의 신 힉노스와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형제라고 생각했다.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남들 자지 않을 때 자는 사람도 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밤에 활동하는 것

장혼은 ‘평생의 지향’이라는 제목의 위 글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의 입지와 구조, 조경 등을 길게 서술하고 부록으로 그 집에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맑은’ 것들을 열거하였는데, 그중 맑은 일과[清課] 34가지 중 하나가 낮잠이었다.

공자는 낮잠을 자는 제자를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옛사람

들의 시에는 낮잠을 자거나 자고 일어난 풍경이 자주 등장한다. 장혼은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낮잠을 들었다.

낮잠은 남들 깨어 있을 때 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남들 잘 때 깨어 있는 불면과 반대이다. 하지만 옛사람들의 심상에서 이 둘은 통하는 데가 있다. 불면은 아무도 세상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깨어 근심하는 뜻있는 선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뜻있는 선비는 대낮에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부박한 천태만상을 위기의 조짐이나 증상으로 보기도 한다. 속세의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등 욕망을 채우려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닐 때 홀로 문을 닫아걸고 눈을 감아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나마 차단하는 것이 낮잠이다. 옛날 사람들은 더러운 흙먼지를 뜻하는 ‘진(塵)’을 속세를 의미하는 말로 썼다. 그런 의미에서 속세와 자신을 격리하는 낮잠은 ‘맑은’ 일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꼭 낮잠이 아니더라도 잠을 현실과의 분리로 보는 발상은 동서고금에

보편적인 듯도 하다. 일례로 <돈키호테>에서 산초는 잠을 자지 않는 돈키호테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한 모든 두려움과 희망, 고난과 영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잠을 발견한 이에게 영광 있으라!”

요즘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정확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하는 SNS, 유튜브 등이 원인이다. 늦은 밤에도 항상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니, 세상과의 격리인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잠이 죽음과 비슷하다지만 결국 죽음은 아니다. 잠을 잘 자야,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현실 세상으로 이어진 선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야 우리는 이 속세를 맑은 정신으로 잘 살아 나갈 수 있다.

출처=한국고전번역원

최 두 현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감로도

‘의식과 기도를 통해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도해

지옥에서 어머니를 만나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긴 가사를 입은 모습에서 그는 출가(出家)의 길을 택한 승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선 한 승려로부터 이 그림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재세시(在世時)에 부처님을 따르던 열 명의 제자 중 한 명인 목련 존자(目鍵蓮尊者)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저마다 모두 한 가지씩 남과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무엇보다 신통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신통력의 눈으로 삼라만상 온 세계를 둘러보다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도에 빠져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귀란 윤회를 통해 태어나는 여섯 가지 길 중 하나로, 아귀도에 빠진 영혼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늘고 음식을 먹으면 모두 불꽃으로 변하여 늘 굶주림의 고통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는 피골이 상접하여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목련은 슬픔을 가다듬고 발우에 밥을 가득 담아 어머니에게 드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밥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꽃으로 변했고,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받겠다고, 부처님에게 어머니의 구제 방법을 여쭙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업력이 무겁고, 악업의 뿌리가 깊어 비록 모자간이라고 해도, 효도의 마음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천신(天神)이나 지신(地神), 사천왕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으며, 오직 스님들의 위력이라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감로도〉, 조선 18세기, 삼베에 색, 200.7×193.0cm, 국립중앙박물관 정명희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 저작물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 전하는 목련 존자 이야기는 유교의 효 사상이 불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랑이나 애정도 미움, 질투, 탐욕과 마찬가지로 모두 인연에 의한 마음의 병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불교에서는 한낱 인연의 업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토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선택한 승려에게 현생의 어머니는 윤회하는 가운데 만난 무수한 인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근심하고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수행의 길을 가는 승려, 보살이 갖는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목련 존자 이야기를 모티브로 아귀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자를 극락세계로 천도하고자 하는 염원이 감로(甘露), 즉 ‘단 이슬’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불화에 도해 되어 있습니다. 감로도에는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살아 있는 자가 마련한 의식과 기도를 통해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도해 되어 있습니다.

아귀(餓鬼),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감로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중심인물은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호소하는 아귀입니다. 아귀는 목련 존자의 어머니이자 육도를 헤매는 모든 영혼을 상징합니다. 감로도의 하단에는, 지금은 아귀가 되어 고통받는 고혼들의 살아생전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의 감로도에서

강조된 의식과 범회 장면은 생략되었고, 대신 빈 밥그릇을 들고 울부짖는 아귀의 모습이 불타오르는 불꽃을 배경으로 역동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 하단으로는 영혼이 겪은 전생의 업이 도해 됩니다.

늘어서 의지할 데가 없거나, 집이 무너져 깔려 죽거나, 고향을 떠난 외로운 타향살이에서 굶어 죽거나, 침을 잘못 맞거나, 우물에 빠지거나, 병이 들어 죽거나, 아이를 낳다가 죽는 등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던 불행한 죽음의 모습입니다. 혹은 즐겁게 시작한 놀이 끝에 목숨을 잡고, 주인이 노비를 때려죽이거나,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끼리 죽일 듯 싸우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현실과 지옥의 경계가 모호한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들은 영혼이 겪은 갖가지 죽음의 모습을 도해한 것이자, 삶 속에서 만나는 최악의 순간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승려들의 여름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 우란분재를 베풀면 살아 있는 부모는 물론 7대의 선망(先亡) 부모와 친척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험한 의식과 간절한 기도는 상단의 일곱 여래를 감응시킬 것입니다. 상단에 표현된 부처들은 구제를 위해 감로를 지니고 쏜살같이 강림하고 있습니다. 아귀도에 빠진 중생은 칠 여래가 내리는 감로를 받아먹음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찰의 법당 한쪽 벽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감로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로도를 통해 우리는 업과 인연에 매여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삶의 진실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음을 갈구하던 조선 시대 사람들의 염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부 실용적인 처방

손가락의 방향을 돌리다

마음이 편치 않다. 속이 묵직하다. 아니, 저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야? 그동안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생각을 거듭하고 있으려니 서운함을 넘어 답기까지 하다. 부정적 상황을 만든(정확하게 말하면, 만들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상대를 씹을수록 마음의 괴로움이 가중되고, 그러다 더 답답해진다.

도대체 왜 그런가?

부정적 상황이 반전되려면 그 인간이 내 기호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그 사람은 과거에 쌓인 인연의 총결산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기호대로 바꾸려면 그 사람을 낳은 인물들을 모조리 소급해서 고쳐야 한다. 그것은 거의 99.99% 불가능하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불가능함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으니 마음이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



다. 그런데도 내 예고는 용을 쓴다. 내 속에서 자해 소동이 벌어진다. 그러다가 문득 손가락 방향을 바꾸어 본다. 손가락을 그 인간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려본다. 그랬더니 방향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어떤 희망이 느껴진다.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

저 인간 바꾸기는 가능성 거의 제로다. 그런데 이 인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않겠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다. 저놈 생각의 주인은 저놈이지만 내 생각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다. 비로소 숨통이 열린다. 스승이 구비해 놓은 생각 바꾸기 도구들로 다시 연습하기 시작한다. 공(空)을 이해하는

27가지 공리(空理), 현실 수용. -구나. -겠지.

그만하니 감사하다.

으~흠! 그 도구들을 절실하게 활용하면서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행복 관리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그렇게 탁마해 가는 인생은 진정 살아봄 직하지 않은가.

손가락 방향을 돌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 나아가 우리 모두의 행복 증진에 효과를 보증하는 실용적 처방전이다. 손가락 방향 바꾸기, 부지런히 연습한다. 하늘이 푸르다.

유 소 립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에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국리 반딧불이> 등

따뜻한 하루

재치 있는 유머 한마디

과거 영국의 한 장관이 국민 보건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한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관, 당신은 의사 출신이 아닙니까? 의사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국민 보건 관련 법안에 대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관에게는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내는 잠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몇몇 몰지각한 의원들만 꺄꺄거리며 웃음소리를 내었

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 혹시 몸이 아프시면 언제든지 제게로 오십시오. 의원님을 정성껏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장관의 순발력 넘치는 답변으로 의회는 곧바로 웃음바다가 되었고, 장관에게 인신공격한 그 의원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감성편지 2025.10. 22.>

지혜의 프락

팁 주는 할머니

“세 사람의 천사를 만나지 못하였더냐?”

요즘 TV 광고 중에 치매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험 광고가 많다. 초창기 치매 보험 광고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모가 어른이 된 자녀를 아이로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지’라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이 치매 시초 증상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시청자들을 설득했다.

그런데 최근 광고에서는 “아내가 집을 팔려고 합니다. 내 간병비 때문에...”, 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날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어야 하는데...”라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광고를 보면서 마음이 찢해지는 것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뿐만 아니다. 친구 몇 명만 모여도 부모님 치매 사례가 쏟아져 나온다. 부잣집 할머니 얘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신을 마사지해주는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오고, 영양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할머니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월 600만 원이 지출된다고 한다. 할머니는 79세로, 건강하다면 외출을 자유롭게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재밌게 사셨을 텐데 건강이 좋지 않아 외출은 병원 진료와 산책이 고작이다.

할머니는 많이 배우셔서 아는 것도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점잖은 분이어서 자기에게 고맙게 해주면 지갑을 열고 5만 원짜리 지폐를 팁으로 주는 멋쟁이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요즘은 가끔 자기 지갑에서 누가 돈을 훔쳐 갔다고 사람을 의심하며 은근히 상대방을 괴롭힌다고 한다. 그러면서 “훔쳐 간 사람이 무슨 죄야. 잃



Photo by Teodor Drobota@Unsplash

어버린 내 죄지”라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여기저기 아프다며 청심환을 먹고 난리를 피운다. 가족들은 치매를 의심하지만, 할머니는 치매의 치자만 꺼내도 화를 내며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할머니의 이런 행동이 귀엽게 느껴진다.

내가 막내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때는 치매라는 것이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94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에 해당하는 노망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몇 살이니?’ ‘어디 사니?’ 이런 호구 조사를 반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아주 건강하셨다. 초코파이를 건네드리면 좋아서 환하게 웃던 모습은 정말 귀여웠다. 엄마는 82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신이 아주 맑으셨지만, TV를 켜며 “그 드라마 몇 번에서 하니”라고 매번 물으셨다. 나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엄마는 어떻게 매번 물어봐”라며 흥을 보았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모두 마지막까지 잊지 않으신 것은 손주들이 오면 용돈을 주는 일이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 두었다가 손주들이 오면 팁 성격의 성과금을 주었는데, 꼭 이름을 쓴 봉투에 넣어주었다. 용돈

을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여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만점이었다. 어느덧 조카들이 결혼하여 아이들이 생겼는데 나도 그 손주들에게 용돈을 준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이 봉투에 이름을 써서 ‘예쁘고 착해서 준다’라며 용돈을 준다.

불교 우화 중에 ‘세 사람의 천사’라는 것이 있다. 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죄인에게 염라대왕이 “너는 어찌 그리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일생을 살았느냐! 세상에 있을 때 세 사람의 천사를 만나지 못하였더냐?”라고 물었다. 죄인은 “제가 그런 훌륭한 분들을 만났다면 왜 생전에 뉘우치고 참회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답하자 염라대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주름이 많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운이 없어 걸음과 말씨도 느린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그런 노인이라면 무수히 보았지요.”

“너는 그 천사를 만나고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어갈 테니 서둘러 선행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염라대왕은 이어 병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과 답을 하고 나서, “너는 이처럼 늙어감과 병듦과 죽음을 경고하는 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을 게을리했기에 지옥의 업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인은 천사이다. 그래서 귀엽게 느껴진다. 치매에 걸린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천사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편집실

죽음의 선취

“죽음 이후보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움에 새록새록 새살이 돋아나길...



지고 구토와 고열이 계속되는 게 독감인 것도 같고, 전에 앓았던 코로나19 증상 같기도 해서 동네 의원에 다녔더라. 약을 먹으면서 꼭 쉬면 나으려니, 가볍게 여기면서 말이다. 119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은 불과 하루 전, 코피가 자주 터지고 급기야 호흡 곤란과 의식을 잃게 된 후였다. 병명은 일명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었다. 두통과 근육통, 구토와 고열이 독감도 코로나19도 아닌 혈소판과 백혈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나타난 증상으로, 이미 중증의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달리 손쓸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웠던 만큼 장례는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치러졌다. 상주인 B 선생은 반쯤 낮이 나가 있었고, 미혼인 두 딸은 울고 또 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장례식장은 일찌감치 큰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이렇게 원통한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에서 시작해 B 선생을 향해 네가 죽었다는 울부짖음까지..., A의 친정붙이들이 쏟아내는 원성으로 들끓었다. 매장이나 화장이나, 선산이나 공원묘원이나, 악상(惡喪)이니 스님을 모셔다가 독경해야 한다, 망자가 불교 신자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 수의는... 관은... 음식은... 등등, 예견되지 않았던 장례에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고도 남을 지경이었다.

오전 1시 40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깊은 밤이나 새벽녘에 걸려오는 전화는 심중팔구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라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기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남짓 독감 증세로 고생하고 있던 30년 지기 A의 전화다. 아니, A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A의 남편

B 선생의 전화다. A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B 선생의 말이 황설수설과 다름없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혈압이며 산소포화도를 가리키는 기계의 수치가 그녀가 살아 있음을 확인해 줄 뿐,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한 A는 가족들

의 오열에도, 나처럼 황망하게 달려온 몇몇 지인들의 부름에도 눈을 뜨지 않았다. 그 새벽, 그리도 다정다감했던 A는 사랑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홀로 먼 길을 떠났다.

처음엔 몸살감기처럼 으슬으슬 춥다고 하더니 두통과 근육통이 심해

그 모든 불협화음을 잠재운 건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죄인을 자처하고 있던 B 선생이었다. 생전에 아내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B 선생은 아득히 먼 이야기라도 하듯 말문을 열었다. 삼베로 만든 수의는 무서워. 그러니 나는 내가 천연 염색해서 한 땀 한 땀 누벼 만든 예쁜 옷

을 입혀 줘. 직접 수놓아 만든 두건도 씌워 주고. 관은 가장 얇은 것으로, 그 위에는 우리 집 마당에 피는 꽃 꺾어서 올려주고. 화장한 재는 도자기도 말고 나무 유골함도 말고 그저 고운 한지에 싸서 우리 함께 다니던 뒷동산 작은 단풍나무 아래 아무런 표식도 없이 묻어줬으면 좋겠어.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면 더 좋을 텐데...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애써 기억을 더듬는 B 선생의 한 마디 한 마디가 A의 음성이 되어 모두의 마음을 적시는 듯했다. 그렇게 A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예쁜 옷을 입고 곱게 수놓은 두건을 쓰고 한 줌 재가 되어 작은 단풍나무 아래 묻혔다.

아직도 가슴 먹먹한 사연을 이리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졸지에 아내를 잃은 B 선생의 이야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다운 오누이처럼, 속 깊은 친구처럼, 초봄의 햇살처럼 밝고 파사로운 부부였다. A는 남편인 B 선생을 두고 말도 없고, 욕심도 없고, 께도 없고, 돈도 없고, 융통성도 없는 5무(無) 양반이라고 놀렸다. 거기다가 마냥 착하고 어리숙해서 답답하기까지 하다고 하면 B 선생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사돈 남의 말 하나며 빙그레 웃곤 했다. 모자라다 싶을 만큼 순박한 A와 세상 물정에 깜깜 무인지경인 B 선생이 만 들어내는 묘한 조화를 보면 두 획이 만나 사람 인(人) 자가 된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곤 했다. 서로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라고나 할까. 그랬던 만큼 B 선생이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저러다 아빠까지 잘못될 것 같아 두렵다는 딸들의 연락에 어찌면 B 선생은 아내가 아니라 우주를 잃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과연 B 선생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모습으로,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아(B 선생이 손대지 못하게 했다는) A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방 안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직장 때문에 주말에나 아버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딸들의 염려에도 아랑곳없이 B 선생의 눈길은 영정사진 속 A의 모습에 머물고 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이 저렇까, 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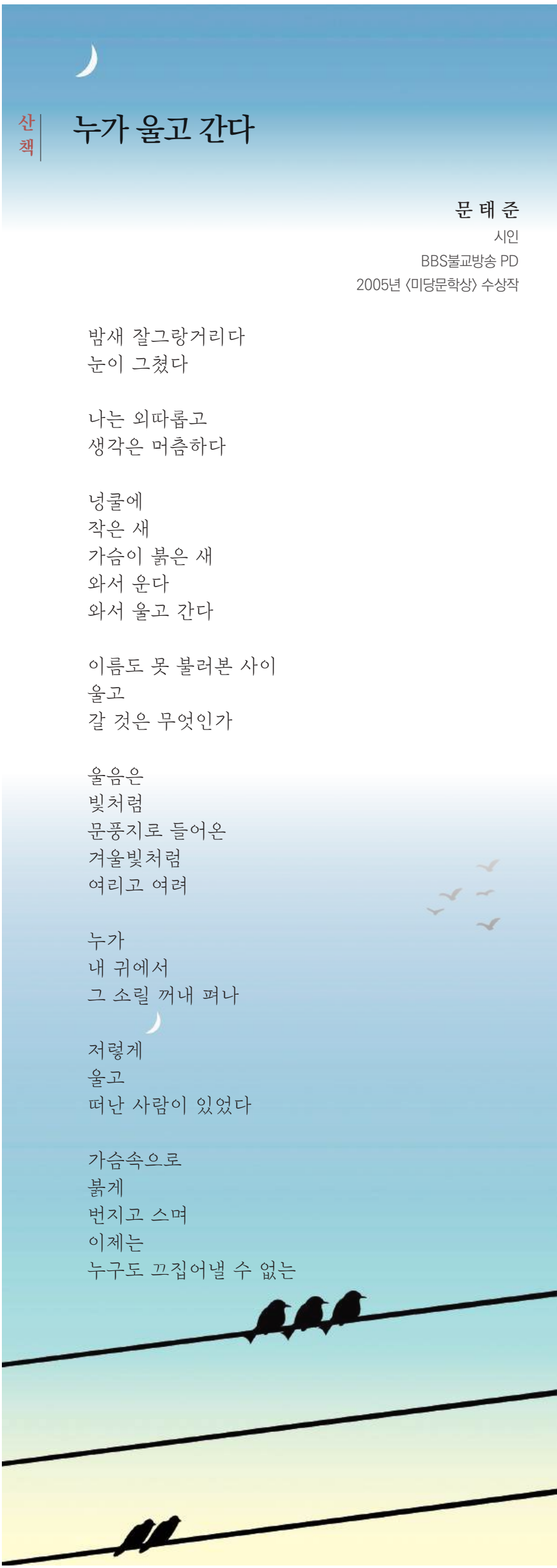
한 B 선생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건 슬픔보다 더 깊은 공허함이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무정한 것 같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때마침 딸들의 SOS에 달려온 B 선생의 친구들이 납치하다시피 B 선생을 데리고 나간 사이에 우리는 딸들과 손을 맞춰 A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알뜰살뜰 애지중지하던 걸 다 놔두고, 하면서 우리가 눈물 바람을 하면 두 딸은 엄마는 왜, 엄마는 뭐 이런 걸, 하면서 울었다. 주인을 잃은 많은 것들이 누구나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칠 그날이 내게도 있다는 생각이 ‘죽음의 선취’라는 말과 함께 죽비가 되어 가슴을 쳤다.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죽음의 선취’는 죽음이 곧 삶을 완성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존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특히 불가(佛家)에서는 죽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죽음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죽음의 선취이며, 부처님께서도 이를 통해 열반에 도달했다고 하지 않던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완성하는 죽음의 선취가 될 수 있으려니.

그날, 외출에서 돌아와 말끔해진 방안에 우두커니 서 있던 B 선생은 다행스럽게도 요즘 아침저녁으로 A가 잠든 단풍나무까지 운신의 폭을 넓혔다고 한다. 아내와의 아름다운 재회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B 선생의 고군분투일 것이다. 금방이라도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던 B 선생의 그리움에 새록새록 새살이 돋아나길 “죽음 이후보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장아함경』의 말씀으로 응원을 대신한다.

이 옥 경

수필가·방송작가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반성^{反省}하는 삶이 바로 새 출발^{出發}이다

반성(反省)이란, 곧 우리 생활 속에서 새로운 생활의 첫걸음이 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반성해야 할 일도 전혀 없고, 내겐 죄(罪)가 없노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과연 몇이나 될까? 하찮은 조그마한 물방울도 모이면 마침내 큰 물통에 가득 채워지듯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둘씩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게 된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노인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다. 노인은 두 여인에게 지나온 과거의 일을 캐물었다.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죄를 고백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이렇다 할 만한 죄(罪)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때 노인은 커다란 죄(罪)를 지었다고 스스로 고백한 여자에게 저쪽에서 한 아름이나 되는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고, 지은 죄(罪)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한 여인에게는 아주 자잘한 돌을 한 아름 주워 오라고 하였다.

두 여인이 그렇게 하자, 노인은 그 돌을 원래 그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고 오라고 하였다. 얼마 후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쉽사리 제자리에 갖다 두고 왔는데, 자잘한 돌을 잔뜩 주워 온 여인은 저마다의 자리를 하나하나 찾지 못하여 도로 가져왔다.

이때 노인은 말하였다.
“그것 보라. 죄(罪)라는 것도 이 돌과 같은 것이다. 큰 것은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이 우화의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時事)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잔잔한 돌을 가져온 여인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罪)를 짓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잘잘못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쳐 알고 뉘우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깨달음은 당연히 얻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바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출발을 좋아한다. 과거에 한 행위는 미련 없이 떨치고 새로운 일을 쉽게 벌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은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다리를 철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다른 동양 사람 같으면 다리를 허물기 전에 반드시 앞뒤를 여러 번 재고 고민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옛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思考)보다는 행동이 앞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追求)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우리는 항상 되돌아 자성(自省)하는 태도를 가지고, 언제든지 새로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反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톨스토이는 “반성(反省)은 곧 새출발이다”라고 했다. 반성(反省)의 지혜가 있는 곳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좀 더 인간다운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라 하지 않을까 한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로 열쇠

- 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나날이 발전해야 함을 이르는 말
- ② 말 속에 뼈가 있다, 예사로운 말 속에 깊은 속뜻이 숨어 있다.
- ③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나 처음 본 인물, 광경 등이 이전에 언젠가 경험하였거나 보았던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
- ④ 사람이나 생물이 나서 살아온 헛수
- ⑤ 한 번도 만나 본 일이 없어 서로 전혀 알지 못함
- ⑥ 아이를 낳을 기미
- ⑦ 불교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마음
- ⑧ <춘향가>의 한 대목.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는 노래
- ⑨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⑩ 경복궁 안에 있는 정전. 임금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을 거행한 곳
- ⑪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⑫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늙고 쇠약하여 저절로 죽는 일
- ⑬ 별주부, 곧 자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판소리계 소설
- ⑭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다른 아이들을 찾아내는 놀이
- ⑮ 백수 광부의 아내가 지었다는 4언 4구체의 고대 가요

세로 열쇠

- ㉠ 해가 뜸
- ㉡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김. 꾸준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
- ㉢ 바다나 사막에서 일어나는 빛의 이상 굴절 현상
- ㉣ 감히 바랄 수도 없음
- ㉤ 어떤 일이 분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 넘침
- ㉥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 ㉦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 ㉧ 가까이할 것이 못 됨
- ㉨ 아들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비슷하다
- ㉩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
- ㉪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과 노래를 하는 전통 민속놀이
- ㉫ 배우자가 죽어서 서로 이별하게 되다
- ㉬ 소설, 연극, 영화 등에서의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
- ㉭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
- #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 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 냄

*정답은 다음호에

소통의 한의학

들국화와 감국

가을 들녘이나 강가를 걷다 보면 소박하게 피어난 들국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화려하고 탐스러우며, 꽃봉오리가 커다란 조경용 국화와는 달리, 산비탈이나 개울가, 들녘 길 어디에서나 청초하게 피어난 들국화는 오래도록 서민들의 따스한 사랑을 받아왔다.

만물이 생장하는 여름의 뜨겁고 습한 시절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다른 모든 꽃이 이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땅에 떨구고, 그 무성하던 나뭇잎마저 단풍 들어, 하나둘 떨어지는 그즈음에 비로소 들국화는 단아한 자태를 우리 앞에 보여준다.

모든 무성한 식물의 생명력을 빼앗는 찬 기운을 이겨내며, 단단한 줄기와 녹색 잎을 내밀고, 찬 이슬 맞으며, 조그마한 꽃봉오리를 맺었다가, 햇빛이 줄어들어 만물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려고 동면에 들러는 그 시점에, 겨울이 별것 아니라는 듯 웅골차게 그 꽃을 피워낸다. 그래서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은 들국화를 사군자의 하나로 그 절개와 기상을 찬양했다.

그 어떤 보살핌 없이 자생하여 산과 들, 길가 어디에서나 지천으로 피어나기에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도 흡사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 싶다. 구절초의 꽃말은 순수, 어머니의 사랑, 축부쟁이는 그리움, 기다림이다. 누구에게나 애뜻하고 언제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단어들이다. 축부쟁이, 구절초, 금불초, 감국, 산국, 개미취, 벌개미취 등이 일부는 들국화로 불리기도 하고, 모두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들국화와 사촌 정도 된다.

그중 감국은 한약재로도 쓰인다.



사진= ©농촌진흥청

감국은 맛이 달고 쓰며, 성질이 서늘하다. 약성은 소풍(疎風)하고 열을 내리며, 눈을 밝게 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 두통, 현기증, 결막염, 심흉번열(心胸煩熱), 정창(疔瘡), 종독(腫毒)을 치료한다. ‘신농본초경’에 따르면, 모든 풍두현(風頭眩), 부어오르고 아픈 증상, 눈이 빠질 듯이 아픈 증세, 눈물이 나는 증세, 악풍습기(惡風濕氣)를 치료하며 혈기를 순조롭게 한다고 되어 있다.

‘본초신편’에는 감국화는 기미(氣味)가 가볍고 맑으며[輕淸] 효과도 완만하므로 반드시 오래 복용해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눈이 아픈 병에 빨리 사용하여 빠르게 효험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증상에는 모두 천천히 써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화는 관상동맥 등 심질환 치료에 유

서민의 다정한 친구 국화,
청량한 기운으로 열 내리고
두통을 낮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치료자

효하고, 두통, 어지럼,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 숨이 가빠지는 증상, 고혈압 병의 치료와 불면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국화가 사용되는 대표적 처방으로 기국지황탕(杞菊地黃湯)이 있다. 숙지황, 산약, 구기자, 산수유, 복령, 택사, 감국화, 목단피 등으로 구성되는 처방으로 간신음허(肝腎陰虛)에 의

한 목현두현(目眩頭眩) 등 증상에 사용된다. 감국은 9~11월 꽃이 만발할 때 채취하여,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약성으로 사용한다. 눈 건강을 위하여 자주 마시는 메리골드 차의 메리골드도 들국화의 먼 친척쯤 된다.

들국화와 큰 가족을 이루는 많은 꽃은 서민들의 다정한 친구이고 위로자이기도 하고, 계절을 견뎌 품어낸 서늘하고 청량한 기운으로 열을 내리고, 두통을 낮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치료자이기도 하다. 길가에 누구의 도움 없이 질박하게 피어난 들국화는 아무런 대가 없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힘을 선사하고 있다.

정은철

나무와 숲 한의원 원장

한명순의
'목수 강씨 아저씨'

보살의 눈으로 노동을 바라보다

목수 강씨 아저씨

우리 동네 연립주택 지하엔
목수 강씨 아저씨가 혼자 살고 계신다.
네모진 얼굴엔
수염이 듬성듬성 돌아있고
체크무늬 남방 차림엔
언제나 까만 때가 찌들어 있다.
지난 여름 방학 때
아저씨 얼굴처럼 네모반듯한
나무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
아저씨의 굵고 거친 손 마디가 만들어 낸
튼튼하게 못이 박힌 나무 상자.
그러나 만져 보면
예쁜 무늬결이 너무 매끄러웠다.
아저씨는 뭉툭한 나무토막을
얼마나 많이 자르고 깎고 다듬고 문질러서
곱고 향기로운 나무 속살무늬를
사과 껍질 벗겨내듯 찾아내셨을까?
오늘은 망치나 톱, 끌을 담은 연장통 대신
콩나물과 파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저녁 햇살과 함께 지하실로 들어가시는
목수 강씨 아저씨를 보았다.

시는 주인공(캐릭터) 목수 강 씨 아저씨의 숨씨를 닮았다. 아기자기한 기교 대신 묵직한 감동의 무게가 시의 내면에 자리 잡았다. 힘이 보이는 시다. 주인공 강 씨 아저씨는 목수 일을 하는 노동자다. 아저씨는 연립주택 지하방에 혼자 살고 있다. 저녁 햇살이 거두어질 무렵, 콩나물과 파를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지하방으로 내려간다. 혼자 사는 데다 생활도 넉넉지 않다.

그러나 당당한 아저씨의 태도에는 가난이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 화자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튼튼하고 의젓하기만 하다. 강 씨라는 이름부터 그렇다. 아무 과장님, 회장님, 선생님보다 막노동계에서 막 부르는 이름, 강 씨라는 이름이 더 튼튼하고 더 뚜렷해 보인다. 남을 위해 베푸는 보살의 이미지로 비친다.

네모진 얼굴은 매우 개성적이지만 나무를 다듬어 네모를 만들어가는 목수의 생계와 이어지는 이미지다. 듬성 듬성 나 있는 수염, 거친 손마디, 체크무늬의 남방이 목수 아저씨의 이미지

를 강화한다. 까만 때는 보살의 서민성을 돋보이게 한다.

목수 아저씨 보살이 선물로 전하는 네모 나무상자에서 화자 어린이는 느낀다. 뭉툭한 나무토막을 얼마나 깎고, 다듬고, 문질렀을까 하고. 튼튼하게 박힌 못, 미끄럽고 예쁜 무늬에서 정성의 흔적을 본다. 목수 보살의 손이 곱고 향기로운 나무 속살 무늬를 찾는데 사과 껍질 벗겨내듯 했을 거라는 신비감을 느끼고 있다.

시의 작가 한명순(韓明順, 1952~) 시인은 바다의 고장 인천 출신으로, 동심으로 시를 다루어 온 중견 시인이다. <하얀 곰 인형>(1994) 등 다수의 동시집을 엮었으며, 해강 아동문학상(1995) 등을 수상했다. 섬과 육지의 자연이 모두 좋아서 제주도와 육지를 나들면서 건강한 시를 빚어 온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 현 득
아동문학가, 시인

한명순 동시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illust.by Katharina Bornowski@Unsplash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 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 흠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한다.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 원 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통 리 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 련 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 성 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 인 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 천 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 룡 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 법 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 지 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 심 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 인 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 지 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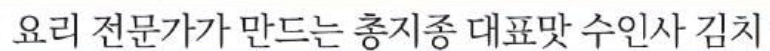
만 보 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 황 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 정 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 국 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 원 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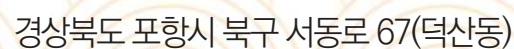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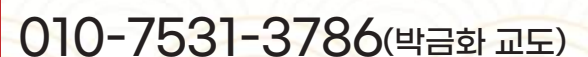
개 천 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 화 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 광 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 음 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 립 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 계 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 인 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 천 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 석 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 음 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 향 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 화 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 행 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 성 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 밀 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량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 화 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 보 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 천 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 상 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 석 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 각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 음 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 해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택배비 별도(6,000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